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暎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20 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 년 7 월 1 일

[1]



제16대 새 임원진 새 결의 다져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金在淳)가 제16대 회장단을 선출하고 지난달 27일 相見의 모임을 가졌다. 趙淳서울시장을 비롯한 24명의 부회장이 새로 선임되어 회장단 상견례는 종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모교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대총동창회의 조직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울대총동창회는 이 나라의 지도세력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성원을 해야 할 것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모교교수와 학생들의

선배로서의 충언

분발을 촉구하는 「선배로서의 忠言」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최고대학인 서울대학이 세계의 1백대 대학의 랭킹에도 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

운 일이기 때문에 총동창회로서는 모교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우정어린 충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모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국제화시대의 창의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줘야 할 듯 싶다. 서울대에는 우수한 사람이 입학하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세계화된 인재보다는 조직지향적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불식할 때가 되었다.

끝으로 총동창회가 보다 끈끈하고 인간적인 결속을 다지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 (林)

부회장 50명에게 선임장 수여

金在淳회장, 전임 공대동창회장 등에 공로패 전달



金在淳회장이 河永基부회장에게 선임장을 전달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5월 27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제16대 회장단 상견례 및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새로 선임된 부회장단과 관악회 이사, 상임이사, 논설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아무쯇록 인생행로에서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하게 만났으니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면서 모교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단과대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李達雨 前공대동창

회장, 琴震鎬 前법대동창회장, 朴亨錫 前환경대학원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행운대상으로 받은 대우자동차 「티코」를 본회에 기증한 朴英子(50년 師大卒)동문과 최근 본회 사무처의 노후된 팩시밀리를 교체, 기증해준 文大源(75년 商大卒·코리아제록스 부회장)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제16대 회장단으로 선임된 50명의 부회장을 대표해 河永基제일생명 고문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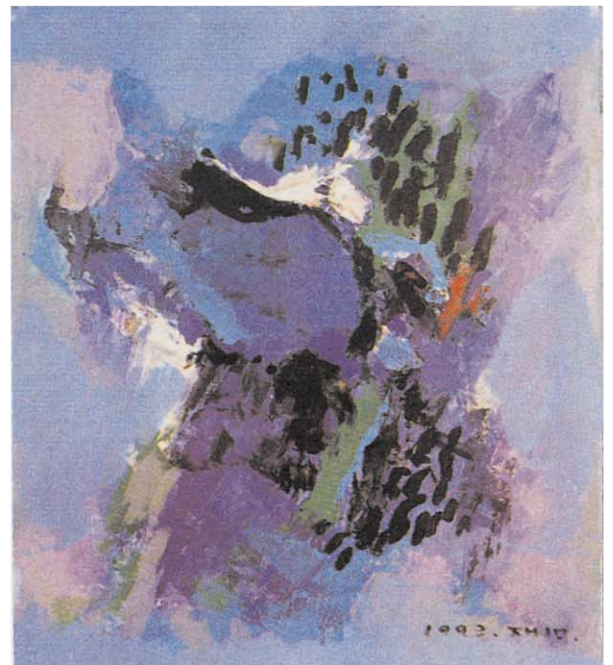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鄭宗澤상임부회장, 馬景錫, 白樂皖, 李聖秀, 金許男, 宋斗瀾, 鄭喜卿, 張翼龍, 李漢雄, 李金器, 李相禹, 尹世榮, 洪斗杓, 卞柱仙, 李祥義, 金英大

부회장, 方孝宣감사, 李世震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본보 논설위원인 孫一根한국일보 백상재단기념관장, 朴世熙모교교수, 林炯斗 SBS편성제작본부장, 安炳燦경원대학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

또 관악회 白文基, 尹相澈, 尹美子이사, 朴英俊, 朴柱鐸감사와 楊銀淑간호대동창회장, 鄭哲圭 공대동창회장, 朴辰煥농대동창회장, 李信子미대동창회장, 張禮準상대동창회장, 金範來수의대동창회장, 李禮植약대동창회장, 李誠載음대동창회장, 李光魯대학원동창회장, 李燦河경영대학원동창회장, 魏駿琳교육대학원동창회장, 李濟薰신문대학원동창회장, 朴重培환경대학원동창회장, 朴煥奭최고산업전락과정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變>

미술작품

金載姪 作



「생성/젓과 풀이 흐르는 땅3」, 24.2×27.2cm, 아크릴+오일+종이, 1993.

<작가약력>

- △1960년 서울대 미대졸
- △개인전 15회(서울, 독일, 일본, 미국 등)
- △1962년 국제자유미술전
- △1963~87년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 △1965~93년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전

- △1973~91년 한국여류화가회 회원전
- △1981년 현대미술관 건립 기금 모금전
- △1986년 오늘의 작가전, 서울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초대전
- △1993년 한국현대회화 초대전

서울대총동창회(전화 702-2233)

제2회 「명화감상회」 성황 「국민제휴카드」 사은행사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제2회 명화감상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동문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명화감상회는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동창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총동창회 국민카드 발급자에 대한 사은행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동문이 가족동반으로 참석, 마이클 더글러스와 아넷 베닝이 주연을 맡은 「대통령의 연인」을 감상했다.

이 자리에는 鄭宗澤상임부회장, 金許男(국회의원)부회장, 金鍾振(포항제철사장)부회장, 李誠載음대동창회장, 朴煥奭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등 동창회 임원도 다수 참석해 「선후배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동창회 재정확충을 위해 본회가 94년 9월부터 실시해온 「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 사업은 동문들의 애정어린 참여로 최근 개인 1만1천4백87매, 법인 2백56매 발급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총동창회 국민카드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는 앞으로 명화감상회 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유익한 행사를 많이 마련해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동문들에 대한 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영동지부

동창회 사업 논의

영동支部同窓會(회장 姜奎錫)는 지난 27일 동해관광호텔 금강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각 단과대학별 활동보고를 마친후 신입회원 소개 및 환영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송년회 계획을 논의하는 등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마쳤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축전을 보내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들의 건강과 동창회 모임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전문이벤트사의 진행으로 야유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부

야유회 등 다채로운 행사펼쳐

울산支部同窓會(회장 金石基)는 지난 16일 울산대학교에서 2백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

尹範相간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 모임이 축제가 되도록 가족동반 모임을 처음 시도한 만큼 미비한 점이 있어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金在淳회장은 金

學均고문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해 기증한 1천3백50만원의 장학기금은 울산지부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격려했다.

또 車秀明국회의원과 具本湖울산대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화합을 통해 울산지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金成龍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회칙 개정을 통해 단기와

정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총회를 마친 후 산상잔디구장에서 전문이벤트사의 진행으로 펼쳐진 가족야유회는 참석한 동문가족들이 청·백팀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게임을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꾸며졌다.

AMP동창회

개설20주년 기념행사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5월 30일 모교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에서 모교방문 행사를 가졌다.

재계 및 정계에서 활약중인 3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孫회장은 「개설 20주년을 맞아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鮮于仲皓총장의 축사에 이어 同會는 鄭壽昌 前대한상의회장, 金復東국회의원, 趙乃璧라이프그룹회장 등 전임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부산지부

국회의원 당선 축하패 증정



작로부터 두번째 宋斗瀾회장

부산支部同窓會(회장 宋斗瀾)는 지난 8일 해운대 마리나 센터 연회실에서 동문 및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宋회장은 金許男(52년 法大卒), 姜慶植(61년 法大卒), 柳興洙(65년 法大卒), 李祥羲(61년 藥大卒), 金道彦(63년 法大卒), 韓利憲(68년 商大卒), 鄭亨根(68년 法大卒), 金炯昨(71년 文理大卒), 朴鍾雄(75년 法大卒)동문 등 총 9명의 의원들에게 당선축하패를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林英植고문의 축배 제의가 있었고, 부산여대 교수 安智煥(77년 音大卒)동문을 비롯한 음대 동문들의 축하연주가 있었다.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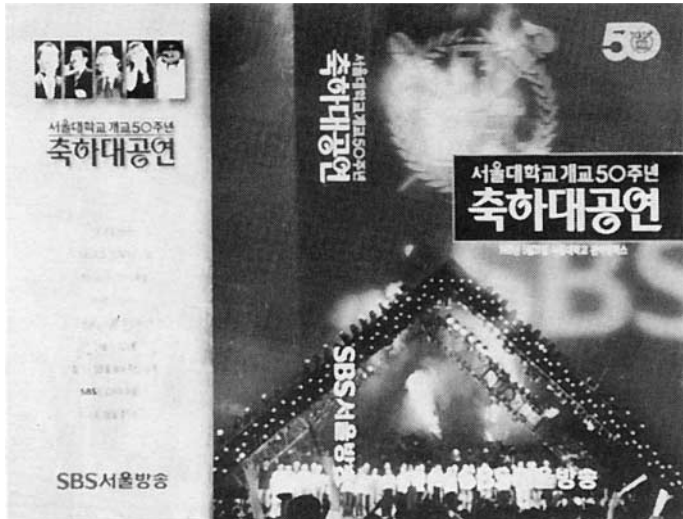
尹世榮SBS회장, 동창회에 「관악인의 밤」 녹화테이프 기증

최근 서울방송(SBS) 尹世榮(사진)회장(61년 法大卒·본회 부회장)이 지난 5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관악인의 밤」 행사(기사 16면 참조) 녹화 테이프 2백개를 본회에 기증했다.

20여일동안 표지디자인(사진 下)까지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이 녹화 테이프는 「관악인의 밤」 행사를 시청하지 못한 해



외지부와 각 지방지부에 발송, 동문들의 모교 사랑을 더욱 북돋을 계획이다.



진주지부

월아산 등산겸 야유회 다녀와



뒷줄 좌로부터 다섯번째 鄭敬泰회장, 河舜鳳국회의원

진주支部同窓會(회장 鄭敬泰)는 지난 5월 29일 야유회를 겸한 월아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지역 국회의원 河舜鳳·金在千동문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행대원동창회

상임이사 추가선임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지난 5월 30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동문들과 최근 영전한 동문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95년도 사업 및 결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安秉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6명의 동문들을 상임이사에 추대하고 景鍾哲청와대 과학기술담당관을 비롯한 22명의 동문들을 이사에 추가 선임했다.

本會 사무처

직원워크샵 개최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15명은 수안보로 야유회겸 워크샵을 다녀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동창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동창회 사무처가 회원 모두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샵을 마친 직원들은 직지사지, 송계계곡 등을 둘러보고 함께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다졌고 직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안보 상록호텔의 관리상무로 재직중인 錢洸(67년 法大卒)동문의 애정어린 지원이 있었다. (熙)

미대동창회

개교50주년 「동창전」 개최

美術大學同窓會(회장 李信子)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모교 박물관 현대미술부에서 개교50주년 기념 「미술대학 동창전」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전시회 첫날인 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모교 관계자를 비롯한 동창회 임원, 미술계 인사 등 다수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와, 조소과, 응용미술과 출신 동문들이 골고루 참여했으며, 선배 원로

작가로부터 후배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2백50여명의 동문이 총망라되어 미술계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회화와 출신의 丁昌燮, 李仁實, 尹明老, 李鍾祥, 鄭埴永동문 등과 조소과 출신인 白文基, 崔秉常동문 등이 참여했으며, 응용미술학과 출신의 朴淑姬, 張潤宇, 趙誠愛동문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견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대동창회

閔丙峻회장 재선임



재선임된 閔회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피력했다.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峻)는 지난 6월 1일 영등포 OB공장 회의실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모교 黃載璣학장, 李相周한림대 총장을 비롯해 최근 영전한 동문들과 鄭喜卿, 裴鍾茂의원 등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동문들에게 축하 화환을 전달했다.

또한 명경희 金基玉 전임회장에게 화환을 증정하고 군산

진성여중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한 李寅揆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의 주요 안건이었던 임원개선에서는 신임회장에 閔丙峻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또한 부회장 선임은 회장에 일임하되 여성부회장 2명을 포함해 그 인원을 10명 내외로 정했다. (志)

산업공학과

모교 방문행사 가져



모교 버들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산업공학과동창회(회장 李寬錫)는 지난 12일 모교 버들골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李회장은 『모교 방문행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더욱 활발한 모임

을 갖도록 하자』고 인사했다.

이날 회원들은 릴레이, 에드벌론 굴리기, 지네발 등의 기대항 게임과 씽크 달리기 등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임 등을 펼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명경회

회장에 李瓊蘭동문



새로 선출된 李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성여자사범학교동창회(명경회 회장 金基玉)는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李瓊蘭동문을 선출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閔丙峻사대동창회장은 金회장에게 본회 金在淳총동창회장 명의로 된 공로패를 전달하고 『회원들 대부분이 철순을 넘긴 나이임에도 건강하게 동창회 활동을 하

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조선해양공학과

동문주소록 발간

조선해양공학과동창회(회장 金兌燮)는 최근 전자우편시대를 맞이하여 E-mail주소를 포함한 동문주소록을 발간했다.

주소록에는 동문들의 대학원

학위논문 제목을 게재해 필요로 하는 동문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同會는 주소록 데이터 베이스와 같이 동문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문들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수정작업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대 19회

신임 李文載회장 선출



신임 李회장이 변함없는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대19동기회(회장 崔基泳)는 지난 24일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들으며 그간의 활발했던 동창회 모임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또한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 1천만원을 鄭正佶행정대학원장에게 전달했다.

趙寬行(포항제철부사장)동문을 비롯한 동창회 활동에 기여해온 權光重(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 朱光逸(대전고검검사항), 朴文榮(신정상운대표이사), 李千洙(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 李鎬君(재경원국제심판소상임심판관), 鄭正佶(모교행대원장)동문은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차기회장에 선출된 李文載(변호사)동문은 『동창회는 회장 혼자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닌 만큼 임기동안 변함없는 협

상대 19회

朴成錫회장 취임

상대19동기회(회장 申英一)는 최근 무역회관 무역클럽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95년도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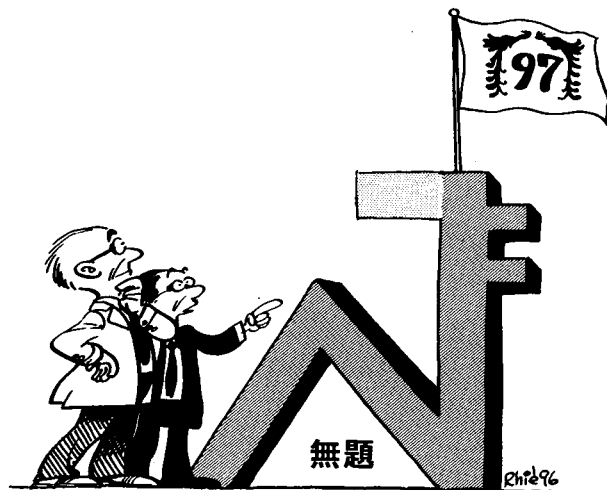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제8대 회장에 朴成錫(한라그룹기획조정실사장)(사진)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朴회장은 『소그룹별 동창모임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19회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부회장에 李甲鉉(외환은행이사), 李振雨(대양사장)동문, 감사에 李敬雨(삼일회계법인대표)동문, 총무에 金洪塚(한국수출입은행인사부장), 吳千植(이엠회성공업부사장)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熙)

만평

李元馥



2002년 월드컵 대회를 한·일 공동 개최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던 날, 한국 대중매체는 야단법석을 떨었다.

논조의 주류는 『전쟁에서 한국이 이겼고 일본은 패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2년 9개월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으니 이긴 것과 같다는 논거였다. 이는 『뒤늦었으나 비겼으니 이겼다』고 손익계산을 하는 꼴이다. 또 대중매체는 22년전 제3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 유럽에서 월드컵 주도권을 뺏아낸 아벨란제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일본편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죽일놈」을 만들어 버리고, 한국을 민다고 하다가 한·일공동 주최에 손을 든 유럽세력은 「개혁파」로 미화했다.

비겼으니 이겼다?

그뿐인가. 여권은 월드컵유치를 차기 권력 창출의 중요한 모티브로 여긴듯한 징후가 엿보인다. 그 맥락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움직인 신한국당 李洪九대표의 위상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눈도 있다.

6월 1일 밤. 초여름의 여의도 광장은 요란한 포성



安 炳 璫

경원대 교수

정치·스포츠·방송의 공생

으로 진동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고장났었다는 사실을 아는터라 난데없는 굉음에 놀란 시민도 많았을 것이다. 알고보니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를 자축하여 폭죽을 터뜨린 소리였다.

그날밤 KBS는 7시 10분부터 월드컵 유치기념 「열린 음악회」를, MBC는 9시 50분부터 월드컵 유치기념 「국민대합창」을, SBS는 MBC와 같은 시간에 월드컵 유치기념 「비바코리아 비바월드컵」을 방송했다. 연예인들의 총출동으로 공연장인 잠실주경기장과 여의도 광장은 시끄러웠다. 행사가 끝난 뒤 경기장과 광장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스포츠와 텔레비전이 상업주의적인 야합을 보여준 장면이다. 정치와 스포츠의 공생관계를 드러낸 보도요, 행사였다.

상업주의적 야합 판처

대중매체는 거대한 사회세력으로 대중위에 군림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팔아서 덕을 본다. 미디어 이벤트는 수용자를 겨냥하여 계획적인 상징조작을 하므로 일부 국민을 내 나라 중심주의 자기도취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이내 잊고만 것은 행사를 정치 우선적으로만 치룬 탓이다. 2002년 월드컵도 국민적 에너지를 정신문화적으로 통합하는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 상업주의 월드컵에 그칠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동문에 고함

資産인재? 負債사원?

기업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와 같이 사원의 활용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左(資産)에 속하느냐 右(負債)에 들어가느냐. 사원교육때 이러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원은 자신의 左 즉 資産에 속한다고 대답한다.

자기개발 게을리해서야

회사의 資産이던 사원이 어느날 갑자기 負債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명한 것과 같이 능력의 라이프사이클도 단명하여 계속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능력은 통용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 아침에 자기 자신이 負債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능력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해야 하며, 각 개인은 철저한 자기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슈퍼그룹 육성 시급하다

모든 조직사회에는 구성원의 약 20%의 「슈퍼그룹」이 있다고 한다. 회사조직이건 군대조직이건 그 조직을 움직이고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인원은 이러한 슈퍼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은 소위 負債사원에 속하

는 데드우드(Dead Wood) 즉 썩은 나무토막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조직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은 월급값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룹이다.

개미나 꿀벌등 곤충의 세계에도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미나 꿀벌이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정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 중 20%만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일하며 그 수가 20% 이하로 줄어들면 자생적으로 부족한



李徽永(57년 法大卒)

LG화재고문

수를 채우고, 20%를 초과하면 그 수가 20%로 줄어든다고 한다.

기업의 인재육성 전략에 있어서 이러한 슈퍼그룹의 확보육성이 큰 과제로 되어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슈퍼그룹을 대리급 중견사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기업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과제를 창출하고 관리자, 경영자, CEO 등의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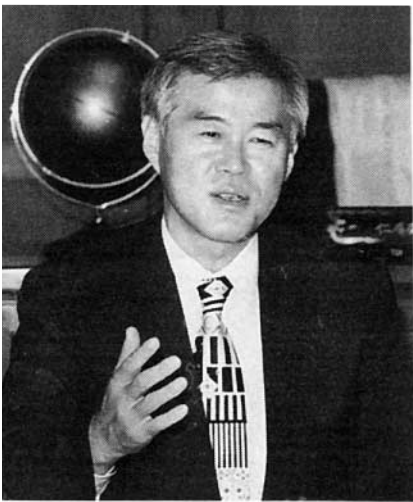
장기발전계획 추진 「2020 인천 드림」 착착 진행

「Tri-port」건설 통한 세계물류 중심도시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② 인천시청



역사의 고장 강화와 광활한 해양과 도서의 웅진, 넓은 평원의 검단이 편입된 인천광역시 면적에서 전국 최대, 인구에서 전국 3위의 대도시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崔箕善(73년 法大卒)인천시장(사진)을 비롯하여 李哲圭(70년 法大卒)정무부시장, 金容模(70년 文理大卒)남동구청장 등 12명 남짓의 동문과 1만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대 민선시장인 崔시장은 「영광스런 민선시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며 시민들의 소망을 기필코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

「제언의 광장」활용 성공적

인천시는 「제언의 광장」을 운영,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당,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 위주의 1일 시청시찰을 확대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활용한 시민제언제도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정보와 권한이 각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명령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소신껏, 신명나게 펼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서울대 동문이며 그동안 눈부신 활동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본보는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맞아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탐방, 소개하고자 한다.



崔시장이 제24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영락원」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했다.

도 활성화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 알리기에 주력하여 투명한 시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보다 신속한 행정 구현을 위한 통신망 확충을 계획하는 한편, 공직자 부정방지를 위해 13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 개선기획반, 이행점검반, 사후평가반으로 구성된 지도개선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야 동문활약 돋보여

인천시는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 시민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徐正圭(83년 行大院卒)교통정책심의

관과 지하철 건설본부 관리과 예산계에 근무하고 있는 李英順(85년 家政大卒)동문은 경인선 복선전철 건설, 경인고속도로 확장,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李哲圭정무부시장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힘쓴 공로로 내무부장관 표창과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李동문은 영종도 신공항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확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현재도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이 어느 분야보다도 많아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 분뇨처리 중·장기대책을 수립한 鄭用俊(80년 社會大卒)보건사회국장을 위시하여 李廷仁(76년 獸醫大卒)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계장과 李輝模(82년 獸醫大卒)보건환경연구원 지방농업연구소도 식품의 위생검사를 통해 시민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李廷仁동문은 축산 분야에서의 공로로 86년 인천직할시장 표창과 88년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權五竣(91년 醫大卒)동문은 공중보건의 근무기간까지 5년여 동안 강화도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진료업무와 방역사업, 소아성인병 예방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미디어밸리」 건립에 박차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시는 중소기업육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1도서 1명품 육성, 농업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수출상품 홍보책자 발간, CD-ROM제작, 4~5개 업체 공동브랜드 개발

<인천광역시 동문 현황>

金容模 남동구청장	70년 文理大卒
李哲圭 정무부시장	70년 法大卒
李廷仁 보건환경연구원 계장	76년 獸醫大卒
鄭用俊 보건사회국장	80년 社會大卒
李輝模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82년 獸醫大卒
徐正圭 교통정책심의관	83년 行大院卒
趙明祚 기획계장	85년 師大卒
李英順 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 예산계	85년 家政大卒
權五竣 강화군보건소 관리의사	91년 醫大卒
河炳弼 수출지원계장	92년 法大卒
李庸哲 경제심사계장	93년 社會大卒

등을 위해 河炳弼(92년 法大卒)수출지원계장 등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업체와 수출관련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장 개설, 보험, 해외마케팅 등을 교육하고 있다.

경영인 출신의 金容模남동구청장은 지난 5월 북미시장개척에 나서 기초단체장으로서 최초로 1백38만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李庸哲(93년 文理大卒)경제심사계장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경제관련사항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잡지 발간과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인 「미디어밸리」 인천시 건립 추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세계진출의 교두보로 부상

인천시는 황해권의 해양요충도시로 중국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부상하는 등 동북아 국제교역 거점도시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자치구이다.

이를 위해 하늘을 통해 전세계로 연결되는 국제공항(Airport), 바다를 통한 대단위 물류집산지인 국제항만(Seaport), 이를 뒷받침할 최첨단 정보통신 기능을 수행할 송도 정보화 신도시(Teleport), 이들 세가지가 조화롭게 결합된 「Tri-Port」 세계도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주역도시, 세계물류 중심기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0올림픽은 인천에서

인천시는 21세기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2020 인천 드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교역·관광 중심도시 건설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중심점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Tri-Port」 기능 극대화로 21세기 세계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여 인천의 위상을 전세계에 과시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崔箕善시장을 비롯한 동문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인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변치않기를 기원해 본다.

(熙)



崔시장이 최근 연평도 등 일선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동정

수상

- ▲李仁實(56년) 美大卒·숙명여대 평생교육원장=지난 20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한국기독교 미술인 협회가 제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수상.
- ▲金坪爽(56년) 師大卒·신임중학교장=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자 대상을 수상.
- ▲金洙鎭(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학술원 회원=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5차 국제응용광물학회에서 논문「하동-산청 고령토의 광물학적 특성과 고구배자력 분리법에 의한 고령토 정제」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
- ▲權甫相(61년) 商大卒·동양창업투자사장=최근「중소기업인 신경영전진대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 ▲朴熊緒(61년) 商大卒·삼성석유화학사장=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4회「환경의 날」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兪玄植(63년) 工大卒·제일모



- ▲李泰衡(63년) 商大卒·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근 96년「세계물의 날」을 맞아 가뭄극복과 물절약 홍보활동을 벌여 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趙福濟(64년) 工大卒·동성고역대표이사=지난 3일 제3회「삼우당 섬유진흥대상」대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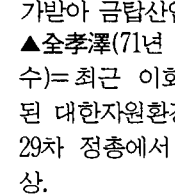
-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걸스카우트총재·本會副會長=최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걸스카우트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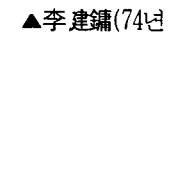
- ▲李弘中(71년) 工大卒·화성산업 대표=지난 20일 대한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진흥추진대회에서「건설



- 진흥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
- ▲全孝澤(71년) 工大卒·모교교수=최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의 제29차 정총에서 학술논문상 수상.



- ▲吳受桓(72년) 美大卒·서울여대교수=지난 14일「공간」사옥에서 제7회「김수근문화상」미술상 수상.



- ▲李建鏞(74년) 音大卒·한국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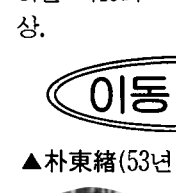
직대표이사)=최근 제3회「삼우당 섬유진흥대상」대상을 수상.



- ▲宋基豪(81년) 人文大卒·모교교수=진단학회가 제정, 시상하는 제15회「斗溪 학술상」수상.



-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교수=최근 이화여고 개교 110주년 기념「이화를 빛낸 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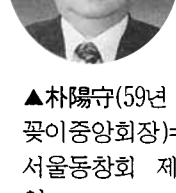
- ▲朴東緒(53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위촉.



- ▲盧在又(55년) 美大卒·인천교대 명예교수=최근 3년 임기의 세계미술교육회의(INSEA) 국제이사에



- 선출.
- ▲金元主(57년) 法大卒·경북대교수=최근 한국환경법학회 정총에서 회장에 선임.



- ▲朴陽守(59년) 師大卒·정수꽃꽃이중앙회장=최근 마산여고서울동창회 제8대 회장에 취임.



- ▲孫章純(58년) 文理大卒·소설

가)=최근 국내 최초의 여성문학계간지「라플루(La Plume)」의 편집·발행

인에 취임. 8월중 창간호를 낼 예정. 최근 제12회 펜문학상(소설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朴澤奎(59년) 文理大卒·건국대교수=최근 열린 한국과학저술인 협회 정총에서 신임회장에 선임.

▲李文熙(59년) 文理大卒·한국일보 편집담당 전무이사=최근 한국일보 전무이사겸 주필에 선임.

▲徐立圭(61년) 工大卒·우림콘크리트사장·대한체육회 이사=최근 아틀란타 올림픽대회 한국대표선수단 본부임원에 선임.

▲尹東潤(61년) 法大卒·한국정보문화센터 이사장=최근 열린 정보화추진협의회 제9차 정총에서 신임

의장에 피선.

▲崔永道(61년) 法大卒·변호사=지난 3일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9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에 피선.

▲李洙彬(61년) 商大卒·삼성그룹금융소그룹회장겸 삼성생명회장=지난 12일 삼성사회봉사단 제2대

단장에 취임.

▲柳魯相(64년) 商大卒·前외환은행상무=최근 열린 외환리스크금융 주총에서 신임 사장에 피선.

▲金孝成(65년) 法大卒·신한국당전문위원=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千洙(65년) 法大卒·前교육부차관=지난 25일 대한교원공제회 제12대 이사에 선임.

▲金曙雄(65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편집담당이사=최근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사대우)에 선임.

▲羅吉雄(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검사5국장=최근 한국은행 검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鄭文謨(65년) 商大卒·前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장=최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로 승진.

▲趙東一(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전산정보부장=최근 한국은행 검사5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吳明(66년) 工大卒·前교통부장관=최근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교수·대한부인종양골프스키회회장=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자궁경부 병리 및 골프스키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에 선임.

▲李天杓(67년) 商大卒·모교교



단장에 취임.

▲金孝成(65년) 法大卒·신한국당전문위원=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千洙(65년) 法大卒·前교육부차관=지난 25일 대한교원공제회 제12대 이사에 선임.



▲金曙雄(65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편집담당이사=최근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사대우)에 선임.



▲羅吉雄(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검사5국장=최근 한국은행 검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鄭文謨(65년) 商大卒·前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장=최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로 승진.



▲趙東一(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전산정보부장=최근 한국은행 검사5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吳明(66년) 工大卒·前교통부장관=최근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교수·대한부인종양골프스키회회장=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자궁경부 병리 및 골프스키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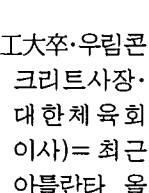
▲李天杓(67년) 商大卒·모교교

단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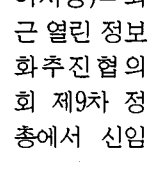
▲金孝成(65년) 法大卒·신한국당전문위원=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千洙(65년) 法大卒·前교육부차관=지난 25일 대한교원공제회 제12대 이사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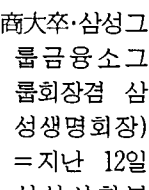
▲金曙雄(65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편집담당이사=최근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사대우)에 선임.



▲羅吉雄(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검사5국장=최근 한국은행 검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鄭文謨(65년) 商大卒·前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장=최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로 승진.



▲趙東一(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전산정보부장=최근 한국은행 검사5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吳明(66년) 工大卒·前교통부장관=최근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교수·대한부인종양골프스키회회장=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자궁경부 병리 및 골프스키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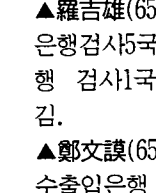
▲李天杓(67년) 商大卒·모교교

단장에 취임.

▲金孝成(65년) 法大卒·신한국당전문위원=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千洙(65년) 法大卒·前교육부차관=지난 25일 대한교원공제회 제12대 이사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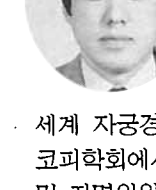
▲金曙雄(65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편집담당이사=최근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사대우)에 선임.



▲羅吉雄(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검사5국장=최근 한국은행 검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鄭文謨(65년) 商大卒·前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장=최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로 승진.



▲趙東一(65년) 商大卒·前한국은행전산정보부장=최근 한국은행 검사5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吳明(66년) 工大卒·前교통부장관=최근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교수·대한부인종양골프스키회회장=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자궁경부 병리 및 골프스키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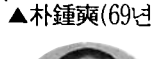
▲李天杓(67년) 商大卒·모교교

수)=최근 제4대 통신개발연구
원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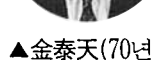
▲金文煥(68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한국문화정
책개발연구
원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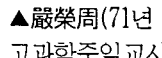
▲李成俊(69년) 文理大卒·한국
일보 이사겸
편집국장·本
報論說委員
)=최근 한국
일보 편집단
당상무이사
겸 편집인에 선임.



▲朴鍾寅(69년) 商大卒·前주택
은행장)=최
근 설립된 예
금보험공사
초대사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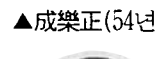
▲金泰天(70년) 新大院卒·고려
증권전무이
사·前新大院
同窓會長)=
지난 10일 북
경의 중국인
민대학으로
부터 객좌교수로 초빙 받아 출
국. 증권업계와 관련한 인민대
학의 초빙은 처음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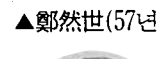
▲嚴榮周(71년) 師大卒·前중경
고과학주임교사)=최근 서울시
과학교육원 장학사로 자리를
옮겼다.

행사·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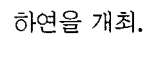
▲趙 淳(49년) 商大卒·서울시
장·本會副會
長)=지난 4
일 연세대 경
영대학원 최
고경영자과
정 수강생들
을 대상으로 「21세기를 준비하
는 시정방향과 기업인의 역할」
을 주제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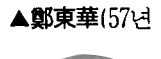
▲成榮正(54년) 工大卒·한화그
룹총괄부회
장·電友會會
장)=지난 14
일 가든호
텔에서 농림
수산부장관,
한전사장 등을 지낸 金榮俊가
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사장의
일대기를 그린 「소신의 공직자,
경영의 달인 둔보 김영준」 출
판 기념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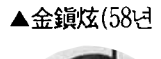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
금협회장)=
지난 26일 롯
데호텔 사파
이어룸에서
한국선금 창
립36주년 축
하연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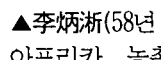
▲李昌洙(57년) 法大卒·새마을
운동중앙연구위원)=최근 아시
아·아프리카 농업부흥기구회원
국 지역사회개발 관계자 14명
에게 새마을교육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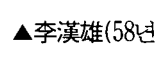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
대총장·전국
교대총장협
의회장)=지
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제주교대에
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를 개최
하고 초등교원양성에 따른 현
안 문제를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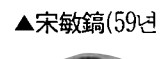
▲金鎮炫(58년) 文理大卒·서울
시립대총장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국의 국제해
양과학기술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한
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 참석해
강연.



▲李炳漸(58년) 法大卒·아시아·
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국동지
역대표·本會理事)=최근 인도
를 비롯한 8개국에서 새마을운
동 연수를 위해 내한한 연수생
14명을 초청, 우호증진을 위한
만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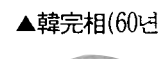
▲李漢雄(58년) 商大卒·신용협
동조합중앙
회장·本會副
會長)=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에서 개최
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
태지역 총회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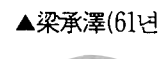
▲宋敏鎬(59년) 法大卒·대전대
교수)=최근
진선미출판
사에서 「정치
학 원론」을
출간.



▲李承煥(60
년) 文理大卒·이화여대교수·한
국어영어비학회장)=최근 「언
어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교실」
을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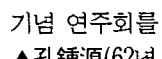
▲韓完相(60년) 文理大卒·한국
방송통신대
학총장)=지
난 4일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화합기
념 논문집
「한국사회학 1:21세기 한국사회
에 대한 전망」과 「한국사회학
2: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봉
정식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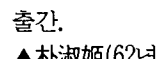
▲梁承澤(61년) 工大卒·한국전
자통신연구
소장)=지난
4일 충남 금
산군 중부대
세미나실에서 중부대와
공동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뉴

미디어-정보환경의 변화와 우
리의 생활」을 주제로 특별강연
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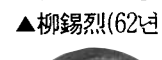
▲朴智惠(61년) 音大卒·前연세
대교수·피아
니스트)=지
난 7일 연세
대 운주홀
에서 「양상
블 무지카」창단
기념 연주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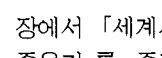
▲孔鍾源(62년) 文理大卒·조선
일보논설위
원)=최근 에
세이집 「곳간
은 차는데 정
은 마르네」를
문음사에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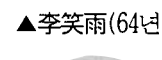
▲朴淑姬(62년) 美大卒·숙명여
대미대학장
)=최근 일민
문화관에서
숙명여대 창
학90주년 기
념 동문전
「숙명미술제」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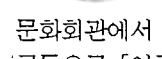
▲柳錫烈(62년) 師大卒·외교안
보연구원교
수·동아시아
연구회장)=
지난 18일 한
국프레스센
터 국제회의
장에서 「세계시민의식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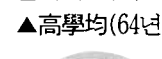
▲李道卿(63년) 農大卒·부평문
화재단이사장)=최근 2개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모교에
재학중인 학생 2명에게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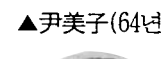
▲李笑雨(64년) 看護大卒·모교
간호대학장·
시그마데타
우한국지회
회장)=지난
13, 14 양일간
양재동 교육
문화회관에서 대한간호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통한 간호실
무 발전」을 주제로 국제간호학
술대회 개최.



▲高學均(64년) 農大卒·모교농
대학장·국립
농학계대학
협의회회장)=
최근 모교 호
암회관에서
趙在衍농진
청장을 초청, 「세계곡물과동과
식량위기」를 주제로 토론회 개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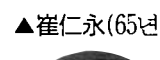
▲尹美子(64년) 美大卒·중문민
속촌대표·冠
岳會理事)=
최근 서교동
의 「규수당에
식장」을 새로
게 단장하고
연회 개최. (전화 332-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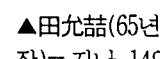
▲玄敬大(64년) 法大卒·국회의
원·평화문제
연구소이사
장)=지난 1
일부터 5일까
지 중국 연변
대학에서 독
일 한스자이펠재단 후원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韓·中경제협
력」을 주제로 열린 韓·中학술
회의에 참가.



▲崔仁永(65년) 工大卒·한국가
스안전공사
사장)=최근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일
본가스기기
협회(JIA)와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협력회의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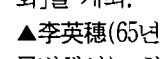
▲田允喆(65년) 法大卒·수산청
장)=지난 14일 고려대 자연자
원대학원에서 「200해리 경제수
역선포로 인한 새로운 해양질
서 재편에 따른 수산업 발전방
향」을 주제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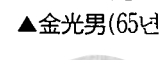
▲曹海寧(65년) 法大卒·총무처
장관)=지난
4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
에서 「행정절
차법 제정을
위한 공청
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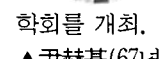
▲李英穗(65년) 師大卒·교수신
문발행인)=최근 서울 인사동
공평아트센터 1층 전시장에서
교수신문사 주최 34인의 교수
작품전 「한국지성의 표상」 개
막식을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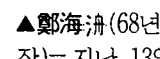
▲金光男(65년) 齒大卒·모교치
대학장)=최
근 스위스그
랜드호텔에
서 제2차 국
제임플랜트·
악안면 보철
학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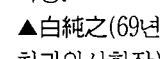
▲尹赫基(67년) 文理大卒·서울
방송사장)=지난 1일 홍콩TVB
본사에서 방송협력에 관한 양
사간 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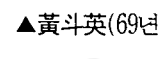
▲鄭海淵(68년) 法大卒·특허청
장)=지난 13일 총무처 중앙공
무원 교육원에서 고위 정책과
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최근
선진산업국의 산업재산권 동향
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



▲白純之(69년) 齒大卒·서울시
치과의사회장)=지난 9일 「치
아의 날」을 맞아 서울시치과의
사회 회원들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을 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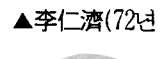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
새마을금고
학회장·行大
院同窓會常
勤副會長)=
최근 동창회
관에서 제1회
「영예로운 근검상」 시상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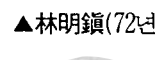
▲李仁濟(72년) 法大卒·경기도
지사)=최근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서
열린 인간환
경정보센터
개소기념 세
미나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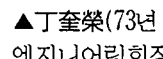
▲林明鎭(72년) 音大卒·하퍼스
트)=지난 2
일 예술의 전
당 리사이틀
홀에서 제자
들과 함께
「하프 양상
블」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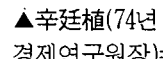
▲丁奎榮(73년) 行大院卒·신우
엔지니어링회장)=최근 사육
이전.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
동 210-2 합동빌딩. 전화: 577
-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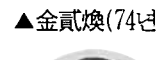
▲辛廷植(74년) 商大卒·에너지
경제연구원장)=지난 4일 한국
전력공사 대회의실에서 「21세
기 에너지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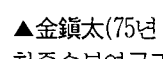
▲金貳煥(74년) 新大院卒·아남
그룹홍보담
당전무이사·
한국PR협회
장)=최근 조
선히 호텔에서
「세계 초우량
기업의 PR전략」에 대한 조찬세
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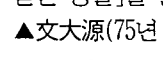
▲金鎮太(75년) 法大卒·대검찰
청중수부연구관)=최근 우리
민족의 간도지방 개척시대에
인고의 삶을 살던 동포들에게
전설적인 자비행음을 베푼 수
월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달을
듣는 강물」을 출간.



▲文大源(75년) 商大卒·코리아
제록스대표
이사부회장
)=지난 25일
부터 28일까
지 4일간 디
지탈제품관
련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일본
동경의 후지 제록스 본사 방문.



▲張賢相(88년) 工大卒·모교교
수)=최근 미국 콜롬비아대학
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음.



(정리=崔恩熙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제219호) 10면 이
동·선임 기사중 李學來동문
에 관한 기사는 동명이인으로 인한 오보입니다.

또한 15면 모임탐방 기사
중 민수회 회장 「崔旭澈동
문」을 「蔡榮喆동문」으로 「간
사」는 「감사」로 바로잡습
니다.



鄭哲圭 공대 동창회장

尹永錫동문, 「무역인 대상」수상 수출증대·기업사회화에 기여

지난 21일 대한상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95 무역인 대상' 시상식에서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그룹총괄회장·본회 부회장)동문(사진)이 대상을 수상했다.

尹동문은 지난해 1백7억불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거제 옥포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지난 5년간 1백10억원을 출연하는 등 기업사회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술교육 및 산학협동 활동을 위해 모교 공대와 고려대 EU연구센터에 5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념사에서 尹동문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하며 이는 공존공영의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安畢妍동문, 「여성굿」선보여 여성예술가 축제 한마당서

지난 17일 동송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뜰에서는 야외 공연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을 향한 한마당축제」가 열렸다.

다양한 장르가 총망라된 여성예술가들의 잔치에서 安畢妍(84년 美大卒)동문(사진)은 퍼포먼스 「두껍아 두껍아 흰 집 줄게 새 집 다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작품은 전래 어린이 놀이를 새로운 여성굿 형식으로 재창조한 작품으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에는 변호사 姜基遠(64년 法大卒·本會理事)동문, 숙대 불문과 교수 朴英惠(65년 文理大卒)동문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安동문은 최근 죽산 국제예술제에 참여, 용실저수지 독방에서의 개막공연으로 예술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熙)

“2년내 엔지니어하우스 완공할 터”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제가 동창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원만히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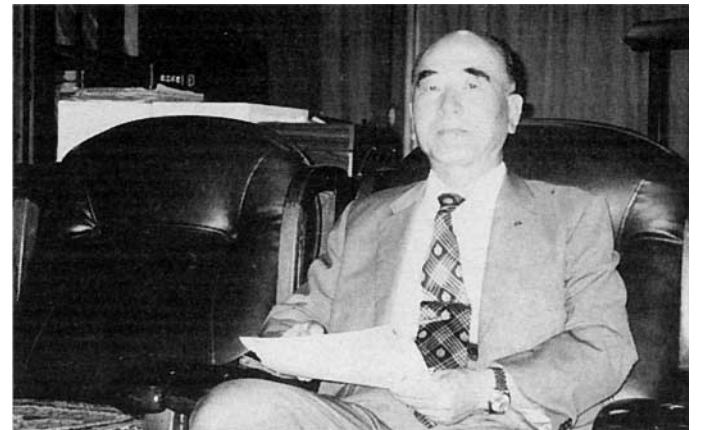
지난 5월 19일 공대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鄭哲圭(52년 工大卒·태성고무화학 대표)동문을 만나 보았다.

— 동창회의 활성화 방안은.

『동창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호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의 활성화는 전회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많은 회원들이 동창회의 존재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창회는 회원개인에게 어떤 가치적인 혜택을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동창회의 활성화에 의하여 모두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원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동창회가 회비만 징수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동창회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즉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동창회 운영방침은.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운영체제의 임원조직을 일하기엔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제가 직접 운영에 개입, 진두지



휘하며 19개 학과의 동창회장을 운영핵심체로 삼아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동창회의 당면과제로서는 「공대50년사」 발간, 「서울공대」지 발간(격월간행), 모교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업은 3년전부터 계획해오던 「엔지니어하우스」의 건립이며 이 사업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모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억원이 모금되었고 앞으로 약20억원을 모금, 금년에 착공하여 2년내에는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3만여 동문의 헌신적인 협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 기업인으로서의 경영철학은.

『40여년동안 고무산업에 종사해오며 평소 학회, 기술단체, 국제로타리클럽 등의 사회단체에 참여,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기술 보

급과 기술인 양성이 절실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력이나마 「至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동문에게 한 말씀.

『제가 71년 화학공학과동창회 간사장을 맡아 울산, 삼척 등을 다니며 기금을 모금한 경험이 있지만 참여도가 부족함을 실감했습니다. 동문 모두가 서울대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교를 세계속의 명문대학으로 육성,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동창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훌륭한 후배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선배는 그 빛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무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더불어 모교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하우스」건립 기금으로 1억2천만원을 기증한 바 있는 鄭동문은 평소 수영, 골프, 음악감상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관악산 등반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 (燮)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이 땅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 없어야”

崔秉烈공동대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련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창립총회를 가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약칭 안실련)」의 崔秉烈(64년 法大卒·국회의원·본회 부회장)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 안실련의 창립 배경은.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1만5천명이나 됐습니다. 또 다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그만둔 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순수시민운동을 하자고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팽개쳐진 「사람」의 생명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활동 계획은.

『첫째, 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몽운동을 펼치는 한편 위험을 알리는 경고마크나 경고문구를 제안하는 등 경고문화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과 위험한 상황 및 행위에 대한 시민 고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에 관련된 학술회의 개최, 간행물 발간은 물론 각종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및 재활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의 안전기구 및 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안실련에 동참하고 있는 동문은.

『안실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범국민적입니다. 동문으로는 鄭錄永(62년 法大卒)前검찰총장, 金學俊(65년 文理大卒)단국대이사장, 明浩根(65년 法大卒)쌍용투자증권 회장, 崔仁永(65년 工大卒)가스안전공사 이사장, 楊秀吉(67년 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대표인 宋 梓연세대총장을 비롯하여 金燦國상지대총장, 趙南鎬한진그룹부



회장, 崔熙岩연세대농구감독, 연극인 尹石花씨, 가수 尹亨柱씨, 개그맨 김형근씨 등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22만 동문들에게 한 말씀.

『현재 우리 동문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도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수의 동문들이 안전관리라는 현실의 심각성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모티브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위를 계도하고 보다 큰 운동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절실히 인식하고 주위를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실련 회원들은 안전문화지도자과정 등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엽서 및 카메라를 휴대하도록 결의했으며 안전수칙지킴이, 안전점검표 만들기, 안전점검의 날에 참여하고 사고유자녀들과 결연을 맺는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전도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전화 706-7502)

(變)



격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자

세상은 철새 없이 흐른다. 흐르는 세월은 무엇인가 자취를 남겨두고 시간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 자취가 바로 개인의 삶의 여정이요 격동의 역사다.

해방된 지 50년이나 6·25전쟁이 일어난 지 46년, 그렇게 혹독한 민족의 수난이었던 일제 36년보다 더 오랜 세월이 흐른 역사의 한 앙금들이다. 5·16 혁명 이후 한 지역의 집권이 36년이 되어 세월의 흐름 속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일제 점령의 36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36년 한 지역의 통치의 진정하고도 겸허한 반성과 방략을 세워야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도 재미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격에 맞는 품위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서독은 전쟁의 죄상을 사죄하고 수상이 직

접 유태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참배하여 속죄의 머리를 숙인데 비해 일본은 사과하는커녕 위안부에 대해 또 망언을 하고 있으니 경제대국의 품위가 말이 아니다.



丘仁煥명예교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조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권위나 명성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자아도취나 과대 망상의 소치가 된다.

최근 관악 캠퍼스의 음악회나 송

도의 이전 문제도 그런 예의 하나다. 상아탑은 파도와 같은 표층문화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여 전통의 현재화를 도모해야 한다.

인문 사회가 없는 관악캠퍼스가 어떻게 서울대를 상징할 수 있는지 역시 품위의 문제와 관련된다. 국민에 외면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격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창회보에 게재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거나 신상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우편뿐만 아니라 전화·FAX·PC통신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이름, 단과대학 및 졸업년도와 연락처를 정확히 써 주십시오.

(우)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 화)

직통 (02)702-2233

FAX (02)703-0755

(PC 통신)

천 리 안

나우누리

ID: SNUA



李鍾惠동문 가족

증조부로부터 4대를 이어온 서울대 가문

최초 여성대사 李仁浩동문등 걸출한 인물 많아

늙은 아들이 노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 옷을 입고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본 세종 임금이 그 효성에 감복해 하사품을 내렸다는 일화가 있다. 「家傳忠孝」 「世守仁敬」. 그때 내려주신 글을 가훈으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李鍾惠동문 가족이다.

모교 출신 직계만 10여명

李동문 가족은 4대를 자랑하는 서울대 가족이다. 선친인 義山 李明世동문은 1918년 현 법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전수학교 출신이며, 장남인 李동문 또한 37년 상과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서울대인이다. 세월이 흘러 李동문의 자손들도 모교를 졸업하고 일가를 이뤘으니 앞으로도 서울대 가족으로서의 역사와 면모를 기대해 볼지하다.

증조부께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 고향인 충남 홍성에서 서울로 이사한 후, 선친인 李明世동문은 그당시 근대교육의 본산이었던 양정의숙에 입학했다.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줄곧 은행에 몸담고 있으면서 계몽활동과 교육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당시 인사들과 뜻을 모아 장학회를 만들어 학교를 설립한 것이 바로 지금의 성균관대학이며 초대 성균관장 및 성균관대학 재단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최남선 등과 함께 「계명구락부」를 창립, 학보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한시와 한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李동문은 부모님의 약을 손수 지어 드리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목숨도 여럿 구했다고 한다.



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李鍾惠동문, 다섯번째 李仁浩, 李善浩동문, 뒷줄 좌로부터 네번째 李成浩동문.

근대교육 강조한 선비집안

경복고교의 전신인 第2高普를 나온 東泉 李鍾惠동문은 조흥은행에서만 35년간 근무하다 지난 72년 상무이사로 퇴임했다. 본인은 「워낙 주변머리가 없어서」라고 장기근속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제때 그나마 한국인의 입김이 살아있던 곳을 찾아 들어가 재물이냐 출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의 얘기다.

「내가 京城高商에 입학할 때만 해도 일제가 高工, 高商 등에는 한국인 학생을 많이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었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李동문의 모습에서 「공부로라도 일본을 이겼다」는 자부심과 함께 지난날 선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영양부족으로 폐결핵을 앓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찬밥을 모아

다가 설렁탕집에 가서 국물만 사가지고 말아먹는 것이 유일한 몸보신이었지. 중소기업은행에 있던 鄭遇昌씨가 내 동기요」

姑婦는 모두 속대출신

李동문은 부인 李石姬씨와의 사이에 6남매를 두었다. 우연히 며느리들 모두 시어머니와 같은 속명여대 출신인 것도 이 집안의 특징이다.

장녀 李仁浩동문은 55년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 2학년 때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 Wellesley대와 래드클리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20여년간 모교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사편찬위원, 대통령 교육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여성로서는 국내 최초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64년 상대를 졸업한 장남 李善浩동문은 상업은행과 외환은행을 거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이사로 있으며, 차남 李文浩동문은 형과 같이 64년에 법대를 졸업하고 모교 환경대학원을 나왔다. 호남정유 전무, 여수에너지 부사장을 거쳐 현재 LG그룹 회장비서실 사장으로 있으며 슬하에 1남3녀중 장녀인 相南씨도 모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서울대인이다.

3남 李成浩동문은 72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LA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李鍾惠동문 가족은 직계만해도 서울대인이 10여명을 넘는데 외손주인 李相敏동문은 모교 자연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 프린스턴대학에 유학중이며, 셋째 사위인 高鉉旭동문도 72년 모교 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서울대인이다.

高동문은 미국 코네티컷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남대 경영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志>

한글
한글

삼베 수건으로 온몸 냉수마찰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등교할 때 빨리 걷고 시간이 늦으면 달리곤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소풍을 갈 때는 市域을 벗어나면 행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몇몇 또래들과 같이 목적지까지 산책 경쟁을 하느라고 빠른 걸음을 넘어 달음박질을 하곤 했었다.

빨리 걷고 달리기 좋아해

당시 고려 5백년의 수도였던 송도 개성에서 살았는데 사찰이 많았으며 송도를 둘러싼 오랜 성곽이 험준한 송악산(흡사 서울의 북악처럼) 능선을 따라 펼쳐져 있었다. 이곳저곳 호기심으로 유적을 찾아 돌아다녔다. 특히 혼자서는 좀 무섭게 느껴졌던 송악산 동쪽 끝에서 성벽 산악지대를 따라 10여리의 험한 길을 오르내리며 서쪽 끝 성문까지 걸던 코스는 잊을 수 없다.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걷도록 만들어 준 모티브가 됐고 거닐고 달음질치는 즐거운 맛을 알게 해주었다.

생선, 버섯 많이 먹어

1960년경부터 시작한 냉수마찰은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하며 삼베수건을 가지고 온몸을 문지른다. 전에는 한달에 한 번씩 화농성의 편도선염을 앓던 것이 냉수마찰을 시작한 이후에는 웬만한 감기는 걸리지도 않고 걸린다고 해도 가볍게 넘어간다. 하기 싫을 때가 종종 있지만 참고 꾸준히 하

禹志亨(42년 京城高工卒)

단국대명예교수



고 있다.

소식하며, 술은 집안 대대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담배는 젊어서 배우려고도 했었으나 결국 익힐 수가 없었다. 혈압은 콜레스테롤의 혈중농도가 한계치인 240 mg/dl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포화지방질을 피하고 생선에 많이 있는 불포화지방질을 섭취하고 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항상 복용하고 있으며 영지, 표고,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기타 식용버섯류를 복용한 것이 효과가 매우 좋아서 병용하고 있다.

필자는 항상 스케줄을 작성하여 바쁘게 생활함으로써 적당하게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음을 젊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비결이다.

모임 採訪

미대 58회

전국순회전 통해 40년 우정 다져

58년 미대 입학동기들로 구성된 미대 5·8회(회장 夫賢一)는 현재 1백여명의 회원들이 교분을 나누며 매년 전시회를 갖는 등 모임의 특색을 굳혀오고 있다. 대학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회원들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재산을 가진 이들이다.

同會는 회원들 다수가 대학강단에서 평소에는 후학양성과 본인의 작품활동에 매진하다가 전시회를 기점으로 함께 모여 작품에 대한 견해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는 모임이다. 75년 俞煌(경북대학교수·초대회장)동문이 모임을 발족시킨 이래 올해로 14회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吳勇默동문 「오룡」으로 더 유명

4·19와 5·18 등 사회적인 혼란을 겪으며 학창시절을 보낸 회원들은 그 때의 경험을 되새기며 정으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한 애정 어린 비평을 나누며 서로의 얼굴에서 세월을 읽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창시절에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분야의 미래가 불확실한 때라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속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막걸리를 나누면서 서로를 다독거린 추억도 있다.

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온 회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도 야기되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의견을 절충하고 모임의 맥을 유지해온 데에는 회원들 개개인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된 연유다. 회원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회장직을 수행하고 총무직을 여러번 맡아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李秉錫동문의 공을 높이 산다.

8월엔 제주시 동문전 계획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골고루 회원이 분포되어 있어 지방에서도 회원전시회를 갖는 등 지방의 문화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한 柳熙永(이화여대 미대학장)동문과 嚴泰丁(모교교수)동문은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吳勇默동문은 「오룡」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삽화 등을 그려 왔다. 회원들 대부분이 모임을 통해 활력을 얻고 열심히 작품활동을 해 어느 한사람도 이름을 알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며 모임을 소개해 준 成耆點(숙명여대강사·한국여류화가회장)동문은 자부심을 감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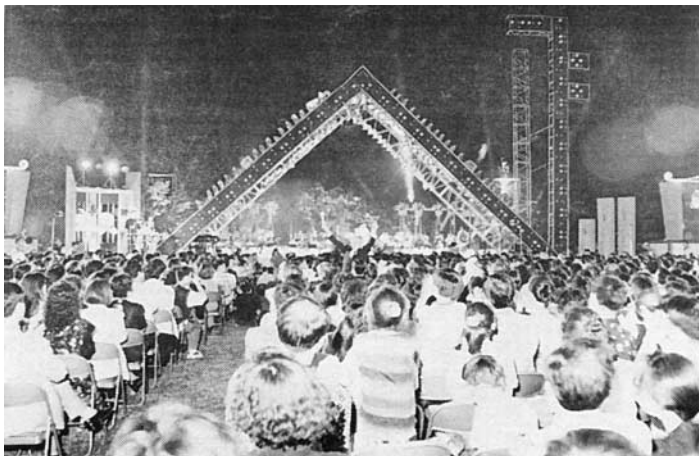
同會는 작년 부산전시회에 이어,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아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熙)



94년 동아미술관에서 58대구전시회를 가졌다.

모교소식

개교50주년 기념 「관악인의 밤」 모교출신 연예인과 흥을 돋워



서울대인과 지역주민의 한마음 축제가 펼쳐졌다.

모교는 개교 50주년 기념 축하 공연 「관악인의 밤」을 지난 5월 31일 관악캠퍼스 본부앞 잔디밭에서 서울방송(회장 尹世榮·本會 副會長)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金在淳 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모교 보직교수와 재학생외에 관악구민들과 학교 수위장 김성염씨, 40여년전 동송동시절부터 교내에서 구두수선을 해온 하용진씨 등도 초청돼 동문과 지역주민의 한마음 축제로 진행됐다.

모교출신 연예인중 가수로는 최희준(본명 崔成俊·59년 法大卒), 趙英男(64년 音大入), 金昌完(75년 農大卒)동문과 그룹 패닉의 이적(사회학과 4년 재학중), 연기자로는 李順載(58년 文理大卒)동문이 출연했다.

또 金正澤(74년 音大卒)SBS 악단장과 성악가 朴忍洙(68년 音大卒)교수가 멋진 음악을 선사했다.

한편 가수 이미지, 김수희, 장혜진, 김건모, 이동원, Ref. 부산대 조영수 교수가 특별출연해 모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申容澈(88년 法大卒)SBS보도국기자와 MC 金沆珠(89년 師大卒)동문이 맡았으며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金民錫(89년 社會大卒)동문과 그의 아내 金慈英(87년 人文大卒)KBS아나운서가 출연, 캠퍼스분위기의 변화와 학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2외국어 가중치 부여 98년 고교종생부 반영

모교는 오는 98학년도 입시부터 고교 종합기록부의 제2외국어과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외국어는 대입수학능력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는데 이어 97학년도부터 본고사 폐지에

따라 모교 입시과목에서도 제외되자 고교에서 눈에 띄게 강의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과대학 신입생 컴퓨터통신교육 의무화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96학년도 신입생 전원에 대해 인터넷사용법, 네트워크의 기초 등 「정보통신입문」 3개 강좌의 수강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실습실과 컴퓨터원용공학센터 등 관련시설을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해 실습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전공과목 학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대법」수정안 발표 총리관할권등 폐지

모교는 지난 14일 기존의 「서울대법」안에서 모교의 특수직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대법」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서울대학교는 국무총리 관할 아래 둔다」는 조항을 없애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특수직위를 포기하는 대신 자치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총장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정권과 5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갖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던 「서울대특별회계법」을 철회하는 대신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 이 법에 따라 모교 계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지난 5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해외활동부문에는 美항공우주국(NASA)에서 30여년간 연구활동을 하며 항공우주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해온 朴 哲(57년 조선항공공학과卒) 日동북대 석좌교수가 상을 받았다.

국내활동분야에서는 연화불화탄소 국산화 제조공정 개발에 성공한 朴健裕(64년 화학공

학과卒)KIST환경-CFC연구부장, 30여년간 전자통신기술분야 정부고위정책담당자로 근무해온 吳 明(66년 전자공학과卒)동아일보 사장, 최초의 국산 알파 엔진 개발에 성공한 李大雲(72년 기계공학과卒)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장 등이 수상했다.

공대는 93년부터 산업기술발전에 큰 공헌을 하거나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 모교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과대학장에 宋相現교수 치대병원장에 林成森교수

지난 6월 3일자로 법과대학장에 宋相現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宋학장은 63년 법대를 졸업한 후 70년 美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한 宋학장은 세계은행 투자분쟁중재센터 중재인, 유니세프법률가클럽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林成森교수가 6월 3일자로 치과대학병원장에 임명됐다.

林원장은 62년 치대를 졸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0년 모교에 부임하여 치과보존학회장, 치과근관치료학회장을 역임했다.

皮千得교수등 20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 명예교수선정위원회(위원장 崔松和부총장)는 지난 6월 5일자로 20명의 명예교수를 새로 추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의 모교 명예교수는 3백71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대된 명예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鎮世(국문학), 李基文(국문학), 張秉琳(심리학), 金商周(금

속공학), 金文漢(건축학), 金極天(조선해양공학), 朱奉圭(농경제학), 辛東韶(임산공학), 沈鍾燮(임산공학), 皮千得(영어교육), 文 龍(영어교육), 李東昇(독어교육), 金聲近(역사교육), 李相燮(약학), 李明學(기악), 郭一龍(의학), 李德鏞(의학), 張潤錫(의학), 金鎮泰(치의학), 李正植(치의학). (燮)



6월호를 읽고

분야별 동문활약

소개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동문들의 소식을 더 많이 게재해 주길 바란다. 특정 인물들의 동정이나 근황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더 많은 동문들이 회보를 통해 소개됨으로써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동문들의 근무처나 주소를 파악하여 더 많은 동문들이 회보를 받아들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총동창회에서 단과대별 또는 입학년도별로 1년에 한가지 정도의 행사를 주최하면 어떨까 한다.

裴正運(63년 商大卒)한국철강신문대표

일반동문에게도

관심을...



동창회보 제 219호를 발행하기까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나라 굴지의 동창회보를 갖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곤 한다.

아쉬움이 있다면 행정 및 법조계의 일들은 졸업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엮어 나가지만 서울대 동창회보답게 우리 사회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21세기를 향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나가는 각 단과대학별, 각 전문분야별 졸업생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지면의 할애가 미미한 편이다.

더욱 많은 부분들이 회보에 수렴되어 지혜의 산실로서 현 사회 속에 뚜렷한 좌표를 설정, 제시해주는 시원하고 짜임새 있는 회보가 되길 희망한다.

白純之(69년 齒大卒)서울시치과의사협회장



신사임당상 받고보니...

1996년 5월 17일은 제28대 「신사임당」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그리고 경북 공에서 「신사임당의 날」행사가 열렸다.

오전에는 전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숨은 재능 발굴을 위한 8개 부문 즉 시, 수필, 동시·동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묵화, 자수, 생활예절 및 다례 등 예능대회가 경북공 행각에서 있었고, 오후에는 신사임당 추대식과 예능대회 시상식이 경북공 근정전에서 거행되었다.

8개 부문 심사거척야

대한 주부클럽 주최의 이 행사는 그 취지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는, 주부가 한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데 크게 작용하듯이 한 국가도 여성이 바로 서야 튼튼한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신

념아래 여성재교육과 여성임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이 뜻에 가장 잘 부합하는 여성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인물을 찾던중 어느 외국학자에 의해 「당신 나라에 신사임당이 계시지 않소?」라고 제의를 받았고, 곧 석학들과 더불어 신사임당에 관한 조명을 하기 시작했다.

봉사의 삶 걸어갈터

신사임당께서는 시인이요, 서예가요, 서화가이시며 그 재능이 뛰어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 또한 각별한 효녀였고, 이울곡 같은 대학자를 길러낸 교육자로서도 손색이 없으신 분이다. 가히 여성의 귀감



林亨珍(55년 師大卒)인천교대교수

이 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신사임당상을 수상하고 보니 저절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동시에 거의 반사적으로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게 된다. 그리고는 곧 앞으로의 나의 삶을 내다보게 되는 것이 나만의 경우만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교직전문가로서의 생활, 서화예술활동, 그리고 나로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보다 더 심도있게 펼쳐 나가는 것이 사임당이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사하자마자 부딪친 직장내 분위기는 십여년간의 학창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첫 월급을 받으면서 함께 입사한 동기들과 극명한 차이를 느꼈고 직장내 미련돌 필요도,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음을 스스로에게 주지시키며 주변 동료들의 호의까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구조적인 불평등이 쉽게 개선될 조짐도 없었고, 점점 의욕도 상실하여 입사 후 한동안은 일에 대한 아무런 열의도 가질 수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생각의 깊이가 얕은 일어서 부끄럽다.

해외출장 기회박탈도

다행이었던 것은 내가 맡은 업무가 공장 설계 업무로 일반 행정 업무와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탓에 설계 업무에 따른 지방의 공장이나 해외 출장의 기회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인해 박탈당하지 않았고 급여 차별의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1년여 만에 동료들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기에 이르렀다. 입사 4년 후 대리가 되었고 지난 1월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과 함께 과장 진급을 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직장내에서 여성의 자리매김이 그다지 수월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의 경우 아직은 상당히 합리적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듯 하다. 나와 같은 시기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한 동료는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해외 출장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힘겨운 상황에 부딪치는 예도 있었으니까...

첫 여성과장에 웬 관심?

입사한지 만 8년 6개월, 지난 1월 과장 진급이 나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아직은 여자 과장이 생소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건 결정이었었던 듯 하다.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진급이 내겐 역시 커다란 관문이었고 이 문을 통과한 대가는 조금 특별했다.

건설회사인 이유뿐만 아니라 첫번째 여자 과장이었던 탓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신문과 잡지들로부터는 꽤나 흥미있는 기사거리로 비추지게 되었다. 급기야 동창회보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으나...



金惠玉(88년 工大卒)선경건설과장

지극히 평범했다고 생각한 내 사회적 위치가 이처럼 여러 사람의 관심(물론 일회성이겠으나)의 대상이 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질문 역시 인간 승리와도 같은 성공담(?)쯤을 기대하는 빛이 역력했고 어떻게 하면 좀더 환상적이고 과장된 흥미거리를 만들어 내볼까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과정속에 아직도 직장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며, 여성들은 동반자가 아닌 도전자로 인식됨이, 8년전이나 21세기를 향해가는 지금이나 변함없음도 다시 한번 느꼈다.

텔레비전 드라마속의 신데렐라는 환상일뿐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평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아직은 사치스런 바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도 어디선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평범한 나의 동료 직장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新刊

■ 韓國의 建築

—尹張燮 著

학술원 회원이며 모교 명예 교수인 尹張燮(50년 工大卒) 동문이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를 집대성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어 주거지, 불교사원, 궁궐, 탑, 정원, 성곽, 분묘, 종묘, 서원 등 건축양식의 발전과정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한국건축사 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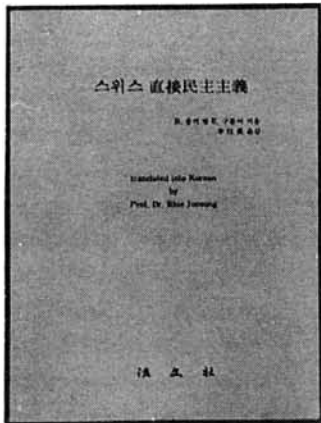
尹동문이 59년부터 카메라와 도면을 돌려보고 전국의 문화재를 돌아보며 집필한 이 책은 전통 건축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의 연구자료와 발해시대 건축문화 발전 내용도 포함, 분단으로 인한 건축사 단절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36,000원)

■ 스위스 直接民主主義

—李柱晟 譯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李柱晟(65년 大

學院卒)동문이 최근 B.용커박사와 E.구룬어교수가 저술한 「스위스에서 시민, 국가 및 정치」를 우리말로 옮겨 놓았다.



李동문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머리말과 차례는 간추려 옮겨 놓고 원문에 게재되지 않은 문헌과 연방헌법을 첨가함으로써 스위스를 연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법문사刊·값9,000원)

公演

■ 金麟惠독창회

—7월 5일 예술의 전당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소프라노 金麟惠(84년 音大卒) 동문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朴恩聖(69년 音大卒·한양대 교수)동문이 지휘하는 이날 공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원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범시민적인 폭력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수익금 전액을 기증하는 자선음악회로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윌리, 바하, 베버, 슈트라우스의 가곡 등으로 꾸며진다.

(정리=安興燮기자)



林惠玉 혜심원 원장

50년간 고아 1천명 돌본 천사

유복한 환경과 최고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주어진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50여년간 1천여명의 고아들을 돌봐온 혜심원 원장 林惠玉(39년 京城師範卒)동문.

林동문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에는 소프트볼 국가대표선수를 지내면서 일본 학생들의 콧대를 꺾어 놓고, 당시 한국학생은 50명밖에 선발하지 않던 경성사범학교에 당당히 입학했다. 졸업 후 스스로 지원하여 강원도 양구에서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과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노래로 이겨내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국가와 사회,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제 힘자라는대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얘기를 듣자면 또 다른 50년도 부족할 것만 같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4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을 노래로 이겨냈어요. 예전 혜심원 밴드부와 합창단의 실력은 대단했지요. 물질적으로는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 아이들의 정서는 많이 각박해져서 마음

이 아파요』

그래서 林동문은 혜심원의 46명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시켜주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래에는 기업체에서도 혜심원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온다.

『아이들의 행동에 바르지 못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나무라주길 바랍니다. 모두들 측은해하고 예뻐하기만 해서 이 아이들이 의타심만 커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되는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친자식도 똑같이 키워

소문나지 않게 아이들을 돌봐온 林동문이지만 50여년의 세월은 결코 무심하지 않

았다. 한국부인회로부터 「훌륭한 어머니상」을 수상하는 등 표창도 받고, 차가 올 수 없는 골목이라 시장님도 한번 찾아주지 않던 곳을 얼마 전에는 영부인 孫命順여사가 몸소 다녀가기도 했다.

자식이 많으면 행여 다른 아이들에게 소홀할까 세 자녀만 두었고, 그 자녀들도 혜심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했다. 아이들에게 강냉이 죽도 맘껏 먹이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파 40여년동안 함께 점심을 끓였던 남편이 9년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林동문은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다. 평생 한뜻으로 아이들 곁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혜심원 전화 755-8459)

(熙)

“동문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 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理事: 4월 12일 ~ 4월 26일 · 一般: 4월 17일 ~ 5월 4일〉

이 사

◇人文大學

▲서원석 ⑧한려개발대표이사

◇社會科學大學

▲이천복 ⑧보람은행과장

◇家政大學

▲우경자 ⑧인하대학교수

◇經營大學

▲박정래 ⑦금성의료기이사

▲이병창 ⑦제일모직이사

▲하부열 ⑦삼화섬유전무

▲한상설 ⑦경안약품대표이사

◇工科大學

▲강석규 ⑨호서대총장

▲공대식 ⑨대한설비공업대표

▲공철규 ⑨내경ENG부사장

▲곽삼영 ⑨고려산업개발고문

▲구자영 ⑨케이티전기대표

▲권기정 ⑦제일합섬상무

▲김경식 ④특허법률사무소장

▲김규갑 ⑨협성산업대표이사

▲김덕영 ⑦롯데기공기술고문

▲김동철 ⑨우성타이어대표

▲김명근 ⑨국동건설부회장

▲김명년 ⑨벽산ENG고문

▲김무현 ⑨진아건축대표이사

▲김병현 ⑨장종합건축사무소

▲김봉빈 ④엘칸토고문

▲김봉완 ④B.W무역사장

▲김상수 ⑥신창전기전무

▲김성철 ⑦KIST교수

▲김수광 ③이화다이아몬드

▲김영기 ⑥정우석탄화학전무

▲김일진 ⑨영남대학교수

▲김재설 ⑥한국동력자원원

▲김정식 ⑨정립건축대표이사

▲김종진 ④포스코센터사장

▲김창수 ⑥부한산업사사장

▲김철 ⑦(주)대농전무

▲김충세 ⑥AT&T KOREA

▲김태준 ⑥희림종합건축사

▲김현진 ⑦현영시스템대표

▲김홍식 ⑥한일건설상무

▲남경희 ⑤울산화학대표이사

▲남정현 ⑥대우ENG대표이사

▲노문섭 ⑥대륙전선전무

▲박석호 ⑦대한인크페인트

▲박승엽 ⑨한영전자회장

▲박영희 ⑥오주개발대표이사

▲박용철 ④장원주유소회장

▲박주천 ⑥국회의원

▲박찬민 ③LG ENG부사장

▲백종기 ⑥태광특수기계대표

▲부대진 ⑥진아건축사무소

본회는 그동안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후배들의 장학금을 비롯해 교수연구비, 모교의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서상기 ⑦한국기계연구원
▲서진근 ⑨중앙학원이사장
▲석희호 ⑨명진교역대표이사
▲손 옥 ⑦삼성전관대표이사
▲송기덕 ⑦정일ENG대표
▲신금진 ⑨한국전력기술고문
▲신현우 ⑦(주)옥시대대표이사
▲신훈철 ⑤성우회관회장
▲안사은 ⑥신안정밀사장
▲안삼덕 ⑥송추관광개발대표
▲안상영 ③벽산건설부회장
▲안선구 ⑥서인건축사무소
▲양재균 ⑥쌍용양회전무
▲여상련 ③삼익유니버설
▲오세철 ⑥서울ENG대표이사
▲오영전 ⑥삼주시스템서비스
▲오철석 ⑨삼능건설상무
▲우남용 ③가나신세기건축소
▲원용선 ④삼화기업회장
▲유승근 ⑦한국건축사무소
▲윤 무 ⑥대림ENG상무
▲윤재석 ③A&D건설턴트
▲윤종구 ⑥선일기업대표이사
▲윤충중 ④센트럴서비스산업
▲이강훈 ⑦태일정밀상무
▲이계호 ⑨前광양제철고문
▲이근수 ⑨풍산(주)부사장
▲이대원 ⑥前국제전선고문
▲이만철 ⑥중소기업銀부장
▲이면기 ⑥선경인더스트리
▲이범호 ⑨한국종합ENG대표
▲이병휘 ④KIST교수
▲이상렬 ⑨(주)미도파부회장
▲이상순 ⑥롯데건설대표이사
▲이상호 ⑦신성ENG상무
▲이석규 ⑥라미산업대표이사
▲이선일 ⑥동양철관회장
▲이승우 ⑥건축설계사무소장
▲이원형 ⑦뉴영남호텔부사장
▲이윤우 ⑥삼성전자사장

▲이재건 ③우인화학사장
▲이정성 ⑨LG금속대표이사
▲이정일 ⑨현대미포조선소
▲이준식 ⑥광주전자대표이사
▲이준의 ④제일화성대표이사
▲이중성 ⑨한국ENG부사장
▲이충용 ⑨서울대학교수
▲이태섭 ②국제라이온스이사
▲이호정 ⑦텍스라인무역상사
▲이흥원 ⑦삼성전자상무
▲이희국 ⑦LG반도체상무
▲임정명 ②부산대학교수
▲임종영 ⑥前LG통신고문
▲장건석 ⑨럭키개발전무
▲장학순 ⑤삼양정수공업회장
▲정연철 ⑦풍국기업대표이사
▲정영희 ⑥금성주유소사장
▲정진화 ⑦지암ENG대표
▲조규대 ⑨경인상사대표이사
▲조수길 ⑦미쓰이코리아고문
▲조용수 ⑦현대석유화학전무
▲조일제 ⑥前영풍산업부회장
▲조장희 ⑥KIST교수
▲조정완 ④KIST교수
▲지만식 ⑥석탄공사훈련원장
▲지철근 ⑤서울대명예교수
▲진국봉 ⑥한국이지업대표
▲채경호 ⑦우영유압대표이사
▲최대현 ⑥태산정밀회장
▲최동재 ⑦이화산업전무
▲최용덕 ⑤건설진흥회위원
▲최익권 ⑦충북대학교수
▲최종명 ⑥한원정밀화학대표
▲한대림 ④서전통상사장
▲한병록 ④지산건설상임고문
▲함태용 ⑥장기신용은행회장
▲허명렬 ⑤덕산ENG부사장
▲현희현 ⑤최신물산회장
▲홍광표 ⑥남양세라믹대표
▲홍용표 ⑥홍진기연대표이사

▲황덕연 ④국립건설시험소
▲황해근 ⑥동일기술공사대표

◇農科大學

▲곽영구 ⑥제일화재해상보험
▲권오진 ⑤서해개발대표이사
▲김동구 ⑨前서산시청부시장
▲김무진 ④중앙케미칼사장
▲김영진 ⑦한국유가공협회장
▲박정운 ⑥식품연구개발원
▲손기성 ⑥옥전상사대표이사
▲심재덕 ③동서철강회장
▲양성렬 ⑥잠사곤충연구과장
▲유동준 ⑥한국단미사료협회
▲윤대섭 ⑤성보실업부회장
▲윤여창 ⑦창원원목장대표
▲이경준 ⑦서울대학교수
▲이수오 ⑦창원대총장
▲장상태 ⑥동국제강회장
▲장우상 ⑦한국청소년연맹
▲정하원 ③대전화학대표이사
▲조장환 ⑥단국대부총장
▲허문희 ④서울대명예교수
▲허신행 ⑥소비자보호원장

◇文理科大學

▲강두식 ①전북산업대총장
▲공종원 ②조선일보논설위원
▲곽만섭 ②산림청장
▲곽화영 ⑦에너지관리공단
▲김대기 ⑨(주)유공이사
▲김문진 ⑥서울신문전무
▲김용국 ⑨(주)IPS 대표
▲김현출 ⑨삼성생명보험대표
▲김현철 ⑥해운대여고교장
▲남영우 ⑦농협중앙회지부장
▲노규래 ⑥충남공영개발사업
▲도준호 ⑥조선일보북한부장
▲문무홍 ⑦통일원통일정책실
▲박부서 ⑦경기銀특별감사관

▲박찬범 ⑥전국택시공제조합
▲박한상 ④변호사
▲양규모 ⑥(주)진양회장
▲유광일 ⑨한양대학교수
▲윤광래 ⑤한국데이터산업
▲윤천주 ⑦前서울대총장
▲은영배 ⑥세무사
▲이규은 ④삼과 꿈 주간
▲이규중 ⑨국민은행장
▲이부식 ⑥항만청장
▲이승윤 ⑤국회의원
▲이창복 ③탐외국어학원장
▲이철배 ⑥LG클럽상무
▲이현조 ⑤LG인화원회장
▲장정환 ③前동화은행감사
▲정 랑 ③KBS사회교육국
▲정병섭 ③前공주봉황중학교
▲정서구 ③KBS진주방송국장
▲정춘택 ⑤쌍용경제연구고문
▲조 은 ⑥동국대학교수
▲주진우 ⑦사조산업대표이사
▲진정일 ④고려대학교수
▲천양철 ⑨연합통신사회부장
▲최 환 ⑤서울지방검찰청
▲하두봉 ⑤광주과학기술원장
▲하영준 ⑥前효성금속대표
▲한갑수 ⑥한국가스공사사장
▲한상복 ⑥서울대학교수
▲한우석 ⑤前외교안보연구원
▲한필순 ⑥원자력연구상임고문
▲홍남표 ③한국국토개발이사
▲홍사덕 ⑥국회의원

◇美術大學

▲강은열 ③계원조형예술대
▲김 태 ⑤서울대학교수
▲민철홍 ③서울대학교수
▲이열모 ⑥성균관대학교수
▲이종철 ③퍼시픽호텔회장

◇法科大學

▲강순걸 ③유성물산교역대표
▲강영훈 ⑥해군사관학교교수
▲강우영 ①서울변호사공인
▲강재모 ⑥동남은행이사
▲강홍석 ④한국산업은행부장
▲고종진 ⑥동양맥주부회장
▲고현철 ⑥법원행정처실장
▲김권택 ⑦변호사
▲김기석 ④법제처장
▲김길대 ⑥건설신문부사장
▲김길환 ⑥민정수석실
▲김도연 ③前대검찰청총장
▲김동건 ⑥서울고법부장판사
▲김명길 ⑦부산대학교수
▲김봉수 ⑦한국산업증권이사
▲김상윤 ⑥변호사
▲김세재 ⑦동일강업대표이사
▲김영일 ⑥국회의원
▲김영태 ⑥한국담배인삼공사
▲김응재 ⑤前대양도료상사

▲김익식⑥롯데그룹기조실
▲김익재⑥변호사
▲김재덕⑦유니테크상사대표
▲김정섭⑦변호사
▲김정후⑥강원대교수
▲김종식⑦경기은행부장
▲김준섭⑥장기신용은행이사
▲김중환⑥서가통상대표이사
▲김치선⑤노사발전재단연구원장
▲김태현⑤변호사
▲김학원⑦변호사
▲김허남⑤국회의원
▲김형배⑤동부그룹회장
▲김홍재⑤변호사
▲김효영⑤국회의원
▲나대진⑦대한해운상무
▲나옥균⑥한화그룹비서실
▲노명준⑥한국의국어대교수
▲노승현⑥한승건업대표이사
▲명호근⑥쌍용투자증권회장
▲문상익⑤변호사
▲문영국⑥관세사무소
▲민수명⑥변호사
▲박경구⑥변호사
▲박 만⑦부산지검조사부장
▲박병민⑦광주은행이사
▲박병희⑥동아투자금융사장
▲박상기⑥변호사
▲박성근⑥일은투자자문
▲박원진⑤상주제일도정공장
▲박윤훈⑥대구대총장
▲박종렬⑥광주지검목포지청
▲박종식⑦변호사
▲박종욱⑦변호사
▲박준서⑥연세대신학대학원
▲박준수⑥제일은행조사역
▲박태중⑥서울고검검사
▲박한철⑦춘천지검속초지청
▲박홍식⑥산업기술정보위원장
▲배용범⑦변호사
▲변규철⑥(주)LG상사회장
▲변정일⑥국회의원
▲황보경석⑥동명진산업사장
▲서성식⑥외환은행리픽지점
▲서원태⑦태성대표이사
▲서익원⑥변호사
▲손광수⑦ 신한은행
▲손선규⑥한국감정원장
▲송광수⑦ 수원지검성남지청
▲송병대⑦
▲송영식⑥변호사
▲신대식⑥오류농장사장
▲신동환⑥최신물산회장
▲신원구⑦구정통상대표이사
▲신재승⑥변호사
▲신정철⑥변호사
▲신창동⑥변호사
▲신홍범⑥제일증권상임고문
▲심한준⑥변호사
▲안응호⑥변호사
▲안준수⑥부산은행이사
▲양영모⑥(주)유공전무
▲우재승⑥세계자유민주연맹
▲유시권⑥한국조세연구원
▲윤경희⑥베어링부라더스
▲윤동윤⑥정보문화센터
▲윤일영⑥변호사
▲윤주원⑥덕양산업대표이사
▲윤진수⑦대법원재판연구관
▲이강환⑥생명보험협회장
▲이건방⑥변호사
▲이관표⑦변호사

▲이만호⑥대구노동청장
▲이명희⑦변호사
▲이법훈⑥코오롱전자부사장
▲이병기⑥남해화학임원실
▲이보환⑥변호사
▲이사묵⑥변호사
▲이삼섭⑦금호합부금융사장
▲이상철⑥동계유니버시아드
▲이석현⑦국회의원
▲이성로⑥상업증권사무
▲이영덕⑦한솔도시락대표
▲이종용⑥한라해운대표이사
▲이주영⑦변호사
▲이택기⑥대명파크대표이사
▲이해원⑥한국우드워드대표
▲이호균⑥재정경제원
▲이희규④광주전주
▲임서빈⑥공인회계사
▲임인상⑥대한상사대표이사
▲장동완⑥변호사
▲전도학⑥우성프라스틱대표
▲전병식⑦춘천지법영월지원
▲전수일⑥광운대교수
▲정병무⑥수출입은행이사
▲정시성⑥통일원
▲정은구⑥삼영익스프레스
▲정재일⑥한국산업리스회장
▲정재형⑥조흥은행본부부장
▲정해창⑥변호사
▲정형근⑥국회의원
▲정희위⑥동림학원이사장
▲조경근⑦변호사
▲조병길⑦변호사
▲조영일⑥변호사
▲진 영⑦변호사
▲천종인⑥농촌진흥청차장
▲최병태⑥상업은행대문지점
▲최원백⑥반도산업대표이사
▲최중현⑥변호사
▲하종선⑦변호사
▲함민식⑥한일은행카드사업부
▲함정호⑦변호사
▲허홍구⑥경향운수대표이사
▲홍명선⑥전대법원총무국장
▲홍인기⑥증권거래소이사장
▲황길수⑥변호사
▲황수길⑦밀양세무서장
▲황이연⑥한국보훈복지공단

◇ 師範大學

▲강신주⑤삼신전자대표이사
▲공구영⑥청량고교장
▲김병준⑦성도교회목사
▲김상욱⑥청주교대교수
▲김연식⑥서울대교수
▲김재은⑥이화여대교수
▲김학천⑥방송심의위원회
▲노재민⑥신일축산공사대표
▲문상호⑥정남산업회장
▲민경현⑥풍문여고교장
▲민재익⑥前고려대기획처장
▲민태익⑥생명공학연구소
▲박송자⑥KIST교수
▲박창수⑥세무사사무소
▲배구섭⑥반포그린테니스
▲육정석⑦단국대교수
▲이석조⑥금호레미콘대표
▲이정태⑥용복중학교장
▲이희호⑥아태평화재단
▲장충식⑥前단국대총장
▲최진오⑥담담실업대표이사
▲황승기⑥승산학원장

◇ 商科大學

▲강문창⑥동산건설부사장
▲고병우⑥동계유니버시아드
▲고일성⑥동진인터네셔널
▲구선희⑥BC카드감사
▲권태웅⑥LG하니웰사장
▲권해동⑦고려산업기술정보
▲권희구⑥주은리스상무
▲김근태⑦국회의원
▲김동영⑥(주)서한대표이사
▲김방연⑥태광산업전무
▲김상훈⑥파스퇴르유업대표
▲김선중⑥(주)진로대표이사
▲김영석⑥前대한교보사장
▲김영석⑥통일원고문
▲김영수⑥만호제강대표이사
▲김용은⑥신신무역대표이사
▲김재철⑥한국전기부사장
▲김종욱⑥전방(주)부회장
▲김진주⑥포항제철부사장
▲김천식⑥서울문고사장
▲김철홍⑥대우정밀공업
▲김태범⑥공인회계사
▲김형만⑥前상호신용금고
▲김형영⑥경남은행장
▲나공목⑥코오롱그룹부회장
▲문대원⑦코리아제록스
▲문정영⑥동남은행제본부장
▲문철한⑥강원대교수
▲민경재⑥前광은리스회장
▲박경휘⑦동화리스금융대표
▲박병운⑥서울경제신문주필
▲박수환⑥(주)LG상사대표
▲박영주⑥이건산업회장
▲박용이⑥제일은행상무
▲박응열⑦
▲박태영⑥국회의원
▲박현두⑥대동기어고문
▲백문규⑥농지개발대표이사
▲변창기⑥동방산업사사장
▲서승원⑦동해리조트개발
▲설원량⑥대한전선회장
▲송병락⑥서울대교수
▲신명호⑥아세아세라텍대표
▲신현석⑥신한증권부회장
▲심대평⑥충남도지사
▲안경태⑦삼일회계법인이사
▲안병국⑥선창산업전무
▲오세영⑥국제통운상무
▲오준희⑥코오롱그룹부회장
▲원무현⑥효성물산대표이사
▲유진무⑥힐튼호텔상무
▲윤문환⑥한두수산회장
▲이덕종⑥덕우상사사장
▲이명기⑥(주)모라도전무
▲이상득⑥국회의원
▲이상익⑥계양전기대표이사
▲이성주⑥인하대교수
▲이수인⑥영남대교수
▲이 연⑥삼성석유화학고문
▲이영세⑥대한전자재료대표
▲이용성⑥前은행감독원
▲이용호⑥협진양행회장
▲이인구⑥남해상사대표이사
▲이일훈⑥수협중앙회부회장
▲이재원⑥새한랜탈대표이사
▲이정호⑥서울대교수
▲이종각⑥대한제분회장
▲이종기⑥삼성화재보험
▲이준용⑥동아제분회장
▲이채득⑥선창산업대표이사
▲이필곤⑥삼성물산대표이사

▲이한섭⑥前한전의정부지점
▲이홍림⑥한일은행검사부
▲이희순⑥세무사
▲임종수⑥롯데물산상무
▲장기팔⑥한일증권사장
▲장명섭⑥前경수투자금융
▲전영완⑥이정인터네셔널
▲정인직⑥서울증권대표이사
▲조경수⑥한국수미트대표
▲조덕찬⑦공인회계사
▲조의진⑥호진성업대표
▲차동세⑥한국개발연구원장
▲차병권⑥서울대명예교수
▲천제혁⑥한일은행상무
▲최경남⑥(주)쌍인대표이사
▲최규성⑥고려화성대표이사
▲최 돈⑥우림인택대표이사
▲최정환⑥우성식품대표이사
▲최태규⑥KBC대표
▲한석운⑥덕신실리콘회장
▲한창곤⑦삼성중공업부장
▲홍승후⑥한진중공업부사장
▲홍재형⑥前부총리
▲황낙주⑥前국회의장
▲황병선⑥오현고교장
▲황병태⑥국회의원

◇ 獸醫科大學

▲강두원⑥동물병원장
▲백문영⑥영지문화사사장
▲백종범⑥금호기축병원장
▲장인호⑥경북대교수
▲조기형⑥한풍제약사장
▲최영일⑥서울YMCA부회장
▲최윤석⑥삼립관리수의사
▲한창훈⑦한도기축약품사장

◇ 藥學大學

▲강석진⑥동덕약국
▲권 박⑥한국세링부사장
▲김시웅⑥국제약품공업사장
▲김상년⑥동방전자부사장
▲김선중⑥한국통프랑로라
▲김성근⑥독일약국
▲김세겸⑥건우과약국
▲김진훈⑦제일제당생산부장
▲문창규⑦대창약국
▲박만기⑥서울대교수
▲박영배⑦동아제약본부장
▲박정규⑥상아약품전무
▲배영일⑥대학약국
▲서석수⑥前부산대대학원장
▲엄용진⑦대호약국
▲오명근⑦지명약국
▲오성환⑥과연약국
▲오응준⑥대전대총장
▲이가평⑥수정약국
▲이필량⑦홍익제약대표이사
▲정동원⑥진양제약대표이사
▲정미화⑥백제약품관리약사
▲정춘희⑥효진사약국
▲최건혁⑦중의제약연구소장
▲하만화⑥한진약국
▲황준수⑥서울제약대표이사

◇ 音樂大學

▲김만복④前숙명여대학장
▲백청심⑦서울대교수
▲이신화⑥김천예고교장

◇ 醫科大學

▲강대성⑥대성의원장

▲강순룡⑥민생의원장
▲강형운④동산재활의원장
▲기의식④기의원장
▲김계태⑦소아과의원장
▲김관엽⑥상계백병원장
▲김광수⑥광생의원장
▲김병규⑥서울의원장
▲김병천⑦내과의원장
▲김수신⑦성형외과의원장
▲김수태⑥서울대교수
▲김중선⑥서울대교수
▲김종희⑥회생의원장
▲김찬영⑥부산대명예교수
▲김창협⑥소아과의원장
▲김한섭⑥중앙의원장
▲노동두⑥서울백제병원장
▲노 영⑦성형외과의원장
▲노형일⑥산부인과의원장
▲맹국영⑦경상의대교수
▲박승무⑦유네과의원장
▲박양실⑥박산부인과의원장
▲박영희⑥부산내과의원장
▲박용재⑦박내과의원장
▲박종명⑦산부인과의원장
▲박희옥⑥산부인과의원장
▲백세민⑦백병원성형외과
▲변상현⑦동수원병원이사장
▲변중훈⑦한국보훈병원내과
▲손 철⑦산부인과의원장
▲송영명⑦소아과의원장
▲신 건⑦신내과의원장
▲신명희⑥성요셉병원소아과
▲심영수⑥서울대교수
▲심재식⑦한국보훈병원
▲엄용의⑥서울대교수
▲오승환⑥신경정신과의원장
▲은세윤⑦소아과의원장
▲이건목⑦서울대교수
▲이기상⑦새서울내과의원장
▲이동렬④내과의원장
▲이명우⑥산부인과의원장
▲이민재⑥고려대교수
▲이병화⑥천의의료원장
▲이성우⑥남산병원장
▲이수동⑦소아과의원장
▲이순용⑥인제대대학원장
▲이양우⑥산부인과의원장
▲이의석⑦이비인후과의원장
▲이종태⑦세브란스병원
▲이창환④성암의원장
▲이필우⑥이필우의원장
▲이한구④서울대교수
▲장성근⑦장정형외과의원장
▲장준홍⑦산부인과의원장
▲장환식⑦서울병원일반외과
▲정진택⑥정의과의원장
▲조명하⑥외과의원장
▲조수철⑦서울대교수
▲조영선④중앙산업보건센터
▲주정화⑥고대안암병원
▲최세준⑥소아과의원장
▲최진영⑥소아과의원장
▲최호용④산부인과의원장
▲최 황⑥서울대교수
▲하재동⑦재동의원장
▲한동수⑥신경정신과의원장
▲한만철⑥前서울대병원장
▲한승수⑥한일병원내과
▲한인권⑦제일병원내과과장
▲한정철⑥덕산병원장
▲홍영수⑦신경정신과의원장
▲황정운⑥황내과의원장

◇齒科大學

▲강구한⁶⁵치과의원장
▲강성현⁷⁵치과의원장
▲권태국⁶²치과의원장
▲권혁도⁷⁶동국치과의원장
▲김규진⁷⁰치과의원장
▲김낙형⁶³성신치과의원장
▲김동자⁵⁶명동치과의원장
▲김두현⁶⁴치과의원장
▲김선일⁶²치과의원장
▲김성남⁷³한신치과의원장
▲김성⁶⁶치과의원장
▲김용운⁶⁸치과의원장
▲김지호⁶⁵에일치과의원장
▲김창원⁷⁵김치과의원장
▲김치영⁸⁰치과의원장
▲남동석⁶⁵서울대교수
▲명노철⁶⁹명치과의원장
▲문제원⁷⁶치과의원장
▲박연천⁷⁹치과의원장
▲박인출⁷⁷예치과의원장
▲박해승⁸⁰63치과의원장
▲서진관⁵⁷한일치과의원장
▲서현종⁷⁸치과의원장
▲성영환⁶⁵치과의원장
▲손근사⁷¹손치과의원장
▲송영호⁶¹송치과의원장
▲송우화⁶⁷치과의원장
▲신정훈⁷¹중앙치과의원장
▲우형식⁶⁵우치과의원장
▲유서운⁶⁸치과의원장
▲유치린⁶³치과의원장
▲유형식⁶⁵유치과의원장
▲윤두중⁷⁵치과의원장
▲이경우⁷⁷치과의원장
▲이규철⁶⁸치과의원장
▲이범권⁶¹치과의원장
▲이병환⁶⁵세명치과의원장
▲이수구⁷²이치과의원장
▲이순표⁶⁵치과의원장
▲이승환⁶⁶치과의원장
▲이용오⁶⁰제일치과의원장
▲이원용⁵⁸원화치과의원장
▲이재운⁶²덕영치과의원장
▲이종수⁵⁶치과의원장
▲이태호⁷⁸치과의원장
▲임태홍⁶⁵치과의원장
▲장상현⁶⁵치과의원장
▲정기근⁶⁷치과의원장
▲정성화⁵⁷치과의원장
▲정종선⁶¹정치과의원장
▲조택순⁷³순도치과의원장
▲최재홍⁷⁷치과의원장
▲하상완⁷⁰신흥치과의원장
▲한용렬⁶⁵치과의원장
▲허택⁷⁷평화치과의원장
▲홍예표⁷¹치과의원장
▲황의강⁶⁷치과의원장

◇大學院

▲김석웅⁶¹부산동의대교수
▲박준성⁷⁹성신여대교수
▲이영덕⁷⁹충남대교수
▲임채원⁶³숙명여대교수
▲정상철⁷⁹인천대교수

◇經營大學院

▲변중석⁶⁸산업은행조사부장
▲엄기덕⁶⁹보령양행대표이사
▲우덕창⁶⁹쌍용그룹부회장
▲이상락⁶⁷성광화성산업대표
▲전도진⁷²대양제지공업

▲한경호⁶⁷신공덕새마을금고
▲허형무⁷²동선합섬상무

◇保健大學院

▲김종오⁸²동남보건전문대
▲문옥륜⁶⁹서울대교수
▲이규한⁶⁵단국대부총장
▲정영채⁶¹중앙대교수
▲조경중⁷⁰前국립부산검역소

◇司法大學院

▲강윤호⁷⁰변호사
▲박병일⁶⁸변호사
▲신기하⁷⁰국회의원
▲지헌범⁶⁹변호사

◇新聞大學院

▲김원기⁶⁸국회의원

◇行政大學院

▲김상영⁶⁵전자신문사대표
▲김익영⁶⁸신용보증기금감사
▲박영환⁶⁸제주호텔대표이사
▲신서우⁶³(사)체우회회장
▲이정옥⁷³한국통신네트워크
▲임경호⁶⁵지방행정연구회장
▲조성근⁶¹대한건설진흥회
▲차유배⁶¹대덕산업대표이사
▲최규학⁶⁵국무총리행정실
▲한호선⁷⁴前농협중앙회장

◇環境大學院

▲권완⁷⁸(주)건영부사장
▲이재근⁶¹한림종합건설전무

일 반

◇人文大學

▲강은봉⁸³ ▲공영화⁷⁹
▲국은주⁸⁷ ▲김영두⁸⁷
▲김인배⁷⁸ ▲김찬식⁹⁴
▲김환국⁸³ ▲박규영⁸⁷
▲박성민⁸⁷ ▲박순발⁸⁴
▲송혁준⁸⁵ ▲신병식⁷⁸
▲심양섭⁸⁷ ▲오영선⁸⁷
▲오정섭⁸⁷ ▲오태석⁸⁴
▲우종근⁸¹ ▲유명숙⁷⁷
▲유정렬⁸⁵ ▲유환식⁸⁴
▲이동영⁸⁷ ▲이동일⁸⁹
▲이범규⁸² ▲이봉연⁸⁷
▲이상규⁸⁸ ▲이상희⁸⁹
▲이세영⁷⁷ ▲이옥정⁸⁵
▲이화연⁸⁸ ▲전경재⁸⁵
▲전인한⁸⁷ ▲정윤호⁸⁹
▲정제문⁷⁶ ▲정지석⁹⁰
▲조재범⁸⁸ ▲최규식⁷⁷
▲최승현⁷⁶ ▲하태진⁸⁹
▲현무환⁸¹ ▲홍기선⁸³
▲홍영호⁷⁹ ▲황현걸⁸⁹

◇社會科學大學

▲강병일⁸⁴ ▲강종석⁸⁵
▲강준원⁸⁰ ▲견익승⁸⁷
▲공선욱⁸⁸ ▲구본성⁸⁹
▲권용수⁸² ▲권태한⁸⁰
▲김기수⁸² ▲김남두⁷⁶
▲김대웅⁹⁰ ▲김대중⁸⁸
▲김병조⁸³ ▲김상완⁸³
▲김승현⁷⁹ ▲김영진⁸¹
▲김용창⁸⁶ ▲김인수⁸⁸
▲김재원⁹⁵ ▲김정기⁸⁵
▲김종민⁸⁹ ▲김주연⁸⁸
▲김준복⁸⁷ ▲김준⁸⁴

▲김태수⁸⁸ ▲김형민⁸⁰
▲류상용⁹² ▲박근섭⁸⁷
▲박현호⁸⁹ ▲백형기⁸⁶
▲송민경⁹⁴ ▲안선아⁸⁹
▲양기웅⁸⁶ ▲양석윤⁹⁴
▲오문석⁸⁵ ▲오종운⁸⁸
▲이동섭⁸⁹ ▲이은우⁸⁹
▲이인재⁸⁵ ▲이창수⁸⁹
▲이철희⁸⁸ ▲임상택⁸⁵
▲임형석⁸⁵ ▲장원영⁸¹
▲정교필⁸⁵ ▲정병욱⁸⁹
▲정연석⁸⁹ ▲정인익⁷⁷
▲조용철⁹² ▲지영수⁹⁵
▲최병준⁸⁰ ▲최우석⁸⁹
▲최재원⁸⁸ ▲최재호⁸⁹
▲하승보⁸⁶ ▲허남수⁷⁸
▲홍기두⁷⁸ ▲홍석진⁷⁸

◇自然科學大學

▲강병산⁷⁶ ▲강봉규⁸⁴
▲권재명⁹⁴ ▲금중해⁸⁰
▲김승우⁸⁹ ▲김영제⁸⁸
▲김한철⁸⁸ ▲노혜림⁸⁴
▲민영철⁷⁸ ▲박해정⁸⁵
▲박화섭⁷⁷ ▲배은희⁸³
▲서민호⁸⁵ ▲성주호⁸⁶
▲손병기⁷⁸ ▲송세안⁷⁹
▲송준화⁸⁸ ▲신현준⁸⁸
▲유양욱⁸⁶ ▲유주연⁸⁹
▲이묘재⁷⁶ ▲이병홍⁷⁶
▲이상현⁸⁹ ▲이재용⁸⁶
▲이종민⁸⁸ ▲임규호⁷⁷
▲임형호⁸⁸ ▲전동오⁸⁸
▲전성호⁸⁷ ▲정동주⁸⁹
▲정명관⁸⁷ ▲정원교⁷⁷
▲정익교⁷⁶ ▲최경호⁹⁵
▲하남규⁸⁵ ▲홍장희⁸⁷
▲황병천⁷⁶

◇家政大學

▲고영자⁶⁴ ▲공경옥⁶⁶
▲권훈정⁸² ▲김미영⁸⁵
▲김선미⁷⁵ ▲김수경⁹²
▲김은희⁷³ ▲김진호⁷⁵
▲박복순⁷⁴ ▲박인순⁸⁹
▲서영해⁷³ ▲신의희⁸⁴
▲여정성⁸³ ▲오경숙⁸²
▲오명숙⁷⁴ ▲유재은⁸⁶
▲유정자⁵⁹ ▲육완진⁶¹
▲윤혜원⁸⁶ ▲이근영⁷⁷
▲이보숙⁸⁰ ▲이승선⁷³
▲이정선⁹² ▲이정자⁶¹
▲이종순⁵⁶ ▲이진영⁷⁷
▲이희주⁶⁰ ▲정수혜⁶³
▲정순자⁷⁴ ▲정태숙⁸⁴
▲조경옥⁸⁵ ▲조길수⁷⁸
▲조영옥⁶² ▲조영자⁵⁷
▲조은영⁸⁸ ▲조진숙⁷⁵
▲조혜옥⁶³ ▲진은숙⁶⁵
▲최경희⁶³ ▲최규순⁶⁵
▲최난희⁸⁷ ▲최영희⁷⁶
▲최희주⁵⁶ ▲추희경⁹²
▲한원⁷⁵

◇看護大學

▲김기희⁶⁹ ▲김복순⁵⁵
▲김영숙⁵⁵ ▲민복희⁵⁸
▲박상련⁷² ▲박인례⁷⁹
▲신순애⁸⁷ ▲안영숙⁷³
▲이성은⁷⁷ ▲이혜자⁸²
▲전기주⁸⁷ ▲정명자⁶⁰
▲정숙영⁵⁹ ▲정혜란⁶³
▲정화자⁶⁶ ▲조명숙⁷⁰

▲최영희⁶⁹

◇經營大學

▲권혁무⁷⁹ ▲김석주⁸⁴
▲김선호⁸⁷ ▲김영봉⁸⁸
▲김영상⁸⁰ ▲김재규⁸⁰
▲민남식⁷⁹ ▲박남옥⁷⁷
▲박병환⁹³ ▲박찬수⁸⁵
▲박치영⁹² ▲배영민⁸⁹
▲서승현⁸⁹ ▲서학수⁸⁸
▲송희식⁷⁶ ▲신동민⁸⁸
▲신중철⁸⁶ ▲오세경⁸¹
▲유진⁸⁶ ▲이동원⁹³
▲이세용⁸⁹ ▲이재형⁸⁵
▲이철주⁸⁵ ▲이평⁷⁸
▲이호창⁸⁵ ▲정인철⁸⁶
▲주우진⁸³ ▲지범하⁷⁸
▲진형노⁹¹ ▲차상명⁸⁹
▲최병호⁸⁷ ▲최원국⁸⁰
▲한상무⁹³ ▲한선구⁸⁵
▲허승호⁸⁶ ▲허일섭⁷⁷
▲허필주⁸⁹

◇工科大學

▲간대영⁶⁵ ▲강동식⁷⁸
▲강성언⁶⁹ ▲강성호⁸⁶
▲강세훈⁷⁵ ▲강순옥⁵⁷
▲강영택⁶⁵ ▲강인엽⁸⁵
▲강현식⁸⁰ ▲강희신⁸⁹
▲고건⁷⁴ ▲고대종⁶⁸
▲고광인⁷⁰ ▲고재우⁷⁶
▲고창준⁸⁶ ▲구동휘⁷⁹
▲권명세⁷⁷ ▲권상형⁷³
▲권장혁⁷¹ ▲권태원⁶⁸
▲길병규⁴² ▲김건일⁶⁵
▲김경종⁶⁴ ▲김경호⁷⁹
▲김계주⁶³ ▲김계희⁶²
▲김광남⁶⁵ ▲김광명⁶²
▲김광현⁶⁸ ▲김권식⁷⁰
▲김규태⁸³ ▲김기남⁷⁷
▲김기봉⁷⁸ ▲김남길⁶⁵
▲김남철⁷⁸ ▲김대현⁷⁴
▲김덕수⁸⁵ ▲김덕우⁸⁵
▲김동선⁶⁴ ▲김동성⁸²
▲김명석⁶³ ▲김명섭⁸⁸
▲김명환⁷³ ▲김문현⁶⁹
▲김백영⁷⁰ ▲김부기⁸⁶
▲김석근⁵⁷ ▲김선장⁶⁹
▲김성준⁷⁰ ▲김소일⁶⁵
▲김수홍⁷⁴ ▲김순민⁷³
▲김안순⁵⁸ ▲김영남⁷⁰
▲김영생⁴⁶ ▲김영천⁶⁵
▲김용태⁵⁷ ▲김우성⁶⁸
▲김우영⁷¹ ▲김원식⁸⁰
▲김윤⁷¹ ▲김을권⁶¹
▲김웅중⁵³ ▲김인식⁶²
▲김인영⁷⁶ ▲김재근⁸⁹
▲김재설⁶² ▲김재학⁷⁰
▲김재현⁵⁰ ▲김재형⁵⁵
▲김종식⁷⁷ ▲김종의⁶⁵
▲김종진⁷⁷ ▲김종하⁸⁶
▲김종현⁶¹ ▲김주영⁶⁴
▲김준모⁸⁹ ▲김중찬⁸¹
▲김진근⁷⁵ ▲김춘자⁶³
▲김충섭⁶⁵ ▲김충열⁷¹
▲김태중⁸⁰ ▲김풍오⁷²
▲김학천⁷² ▲김한영⁷⁶
▲김한중⁷² ▲김현원⁷⁵
▲김형주⁶² ▲김형철⁸³
▲김환기⁶⁶ ▲나성웅⁷⁶
▲나종태⁷¹ ▲남일순⁸⁵
▲남장수⁶⁸ ▲남준현⁷⁹
▲남지중⁸⁴ ▲노무섭⁷³

▲노무수⁶⁷ ▲노용래⁸⁹
▲노철균⁷⁴ ▲류승문⁷⁵
▲마석일⁶¹ ▲문병수⁶¹
▲문원모⁸⁷ ▲민병선⁶⁰
▲민상열⁸³ ▲민성기⁷¹
▲민현석⁸⁸ ▲박관호⁸⁷
▲박광일⁸⁷ ▲박기석⁶⁵
▲박노선⁷⁹ ▲박동원⁶²
▲박명식⁷³ ▲박봉철⁸⁷
▲박성규⁷⁵ ▲박성오⁸³
▲박성택⁷⁹ ▲박승웅⁶⁵
▲박용남⁶⁵ ▲박원규⁵²
▲박원훈⁶⁴ ▲박인균⁷⁹
▲박인섭⁷⁷ ▲박정근⁷¹
▲박주환⁷¹ ▲박준호⁷⁷
▲박찬빈⁶⁶ ▲박철⁸⁷
▲박철웅⁸⁸ ▲박춘배⁷⁴
▲박향재⁷⁵ ▲박형순⁶⁵
▲박호건⁷⁴ ▲박희규⁵⁸
▲배시화⁷⁶ ▲배재홍⁷⁷
▲백기남⁷² ▲백남기⁵³
▲백선욱⁸⁶ ▲변선호⁶⁵
▲변응현⁷⁰ ▲변재국⁶⁵
▲변재완⁸³ ▲서대웅⁹²
▲서상호⁶⁹ ▲서선덕⁷⁹
▲서영길⁵⁹ ▲서종철⁶⁵
▲석효경⁷³ ▲성낙진⁶⁰
▲성일현⁶⁴ ▲손계국⁷⁴
▲손명환⁵² ▲손우태⁶⁹
▲손중권⁷⁵ ▲송길호⁷⁴
▲송상현⁸⁶ ▲송영부⁷⁰
▲송유덕⁷⁰ ▲송준민⁶¹
▲신경호⁶⁵ ▲신광현⁶¹
▲신국범⁵⁶ ▲신동기⁶⁵
▲신동주⁸³ ▲신동준⁸³
▲신영준⁷⁹ ▲신정철⁸²
▲신종계⁷⁷ ▲신현묵⁴⁸
▲안상춘⁷² ▲안영구⁶⁹
▲안종상⁷¹ ▲안희영⁶²
▲양동률⁵⁴ ▲양승준⁷¹
▲양승일⁶⁹ ▲양승택⁶¹
▲양점식⁸⁶ ▲엄주태⁸⁰
▲엄태우⁶⁷ ▲여인갑⁶⁸
▲오병욱⁶¹ ▲오상호⁵⁵
▲오정일⁶⁸ ▲오지재⁷⁴
▲오희선⁸⁶ ▲육영석⁸²
▲왕동근⁶⁷ ▲우용제⁸³
▲우종삼⁶⁰ ▲원제혁⁶⁴
▲유교환⁶¹ ▲유상부⁶⁴
▲유상원⁶⁷ ▲유세중⁸⁴
▲유승웅⁶⁴ ▲유완상⁷¹
▲유용대⁷⁴ ▲유정철⁵⁸
▲유진화⁶⁵ ▲유하영⁷⁴
▲육완식⁵⁴ ▲윤봉섭⁷⁹
▲윤상건⁷⁷ ▲윤영희⁵⁵
▲윤재명⁷⁰ ▲윤창번⁷⁸
▲윤추성⁶⁵ ▲윤학범⁷²
▲이경석⁸⁰ ▲이광복⁷¹
▲이광우⁷⁷ ▲이규렬⁷¹
▲이규목⁶⁵ ▲이규봉⁷⁸
▲이근호⁷⁴ ▲이남식⁷⁰
▲이대형⁷¹ ▲이도영⁵⁸
▲이동녕⁶¹ ▲이동수⁶⁶
▲이민⁶⁴ ▲이민석⁶⁹
▲이병철⁸¹ ▲이병효⁶⁷
▲이삼형⁴⁹ ▲이상건⁷⁸
▲이상기⁸⁴ ▲이상현⁹⁰
▲이상호⁵⁵ ▲이선계⁶⁹
▲이수웅⁷¹ ▲이순병⁷²
▲이안부⁶⁶ ▲이용벽⁸¹
▲이용석⁵⁵ ▲이용선⁷⁸
▲이용우⁶⁸ ▲이용우⁸¹

▲이원섭⁷⁰ ▲이원환⁵³
▲이유근⁶² ▲이의은⁸⁴
▲이장규⁷¹ ▲이재광⁶⁰
▲이재원⁵⁹ ▲이재창⁵⁷
▲이재홍⁷⁵ ▲이정남⁶²
▲이정환⁹⁵ ▲이종열⁷⁹
▲이종열⁵⁰ ▲이종원⁷⁰
▲이종진⁵⁹ ▲이종화⁵⁵
▲이주완⁶⁹ ▲이지복⁶⁸
▲이찬진⁸⁹ ▲이창복⁷³
▲이철원⁶⁷ ▲이충우⁵⁶
▲이태승⁸⁹ ▲이혁원⁸⁰
▲이현규⁸⁵ ▲이호준⁶⁸
▲이호현⁵⁵ ▲이흥근⁶⁹
▲이홍배⁶¹ ▲임경호⁸⁶
▲임병화⁵² ▲임성빈⁵⁶
▲임승근⁶⁷ ▲임승진⁷⁹
▲임의성⁶⁵ ▲임현구⁷³
▲장기철⁸⁴ ▲장석열⁶⁹
▲장성태⁷⁸ ▲장현상⁸⁸
▲전갑문⁵⁷ ▲전승렬⁶²
▲전영국⁶⁶ ▲전영웅⁸¹
▲전화성⁶⁷ ▲정용태⁶³
▲정운선⁶⁰ ▲정윤진⁷⁷
▲정운택⁵⁹ ▲정재관⁶¹
▲정재수⁸¹ ▲정주열⁸⁰
▲정준식⁶¹ ▲정준철⁸⁵
▲정진경⁵² ▲정치권⁶⁷
▲정하복⁶⁷ ▲정하봉⁸¹
▲정현민⁶² ▲정형수⁶³
▲정환구⁴⁹ ▲조규진⁸²
▲조규홍⁷¹ ▲조남일⁶⁵
▲조남준⁸⁵ ▲조득호⁷¹
▲조명호⁷⁸ ▲조순교⁷⁸
▲조영일⁶⁷ ▲조영호⁶⁸
▲조용준⁶⁰ ▲조원대⁶⁷
▲조유근⁷¹ ▲조철일⁸³
▲조현영⁵⁷ ▲조효상⁷⁰
▲주원영⁸⁶ ▲주중혁⁸⁹
▲주한용⁶⁶ ▲채경민⁸²
▲채희정⁸⁹ ▲천성록⁸³
▲최규석⁵⁵ ▲최동환⁶⁸
▲최민성⁷⁰ ▲최병선⁶⁴
▲최상돈⁶⁴ ▲최상혁⁶³
▲최성립⁵⁸ ▲최성일⁶⁶
▲최영규⁸⁴ ▲최영섭⁵⁶
▲최용환⁴⁸ ▲최웅렬⁶⁴
▲최원필⁷¹ ▲최정아⁸⁷
▲최종명⁷⁹ ▲최준수⁸⁷
▲최진영⁸² ▲최희운⁵⁴
▲최희정⁶⁵ ▲하창한⁶⁷
▲한규탁⁷⁷ ▲한범숙⁶⁸
▲한보식⁵⁰ ▲한봉희⁵²
▲한상조⁵⁷ ▲한상준⁶⁷
▲한상훈⁷⁹ ▲한성섭⁷⁵
▲한창천⁷⁵ ▲허수웅⁶⁵
▲허해만⁸³ ▲홍경⁷¹
▲홍규식⁸⁶ ▲홍성욱⁸³
▲홍성일⁷⁰ ▲홍안의⁶⁷
▲홍영진⁶⁹ ▲홍호식⁷³
▲황규덕⁵³ ▲황규홍⁷⁹
▲황인석⁷² ▲황정렬⁶⁸
▲황준영⁷⁰

◇農科大學

▲강동석⁸⁵ ▲강문주⁴⁸
▲강영선⁴⁰ ▲강인식⁸³
▲강정만⁷⁹ ▲고병렬⁵⁷
▲고상현⁸⁹ ▲고영규⁸⁸
▲고재윤⁵² ▲곽소수⁶⁶
▲권태걸⁶³ ▲권혁⁸⁷
▲권혁재⁵⁷ ▲길원진⁸⁸
▲김갑규⁷² ▲김경준⁸⁶

- | | | | | | | | | | | | |
|--------|--------|--------|--------|--------|--------|--------|--------|---------|--------|--------|--------|
| ▲김정하75 | ▲김공환73 | ▲차성운61 | ▲채대석65 | ▲오희갑68 | ▲우삼택72 | ▲이강소65 | ▲이정옥68 | ▲이상만63 | ▲이석영55 | ▲김진영69 | ▲김진택65 |
| ▲김기수61 | ▲김두만56 | ▲천금성66 | ▲최동근63 | ▲원성기63 | ▲원인기70 | ▲이선원79 | ▲이성옥74 | ▲이석희70 | ▲이성준68 | ▲김창걸60 | ▲김충식64 |
| ▲김보영72 | ▲김복진64 | ▲최동열55 | ▲최정열78 | ▲유기수57 | ▲유병길72 | ▲이영규86 | ▲이옥수78 | ▲이세훈61 | ▲이승용77 | ▲김충회63 | ▲김태화40 |
| ▲김삼남68 | ▲김상기65 | ▲최창우64 | ▲최춘숙89 | ▲유영균67 | ▲유정렬52 | ▲이용국65 | ▲이환범77 | ▲이신섭66 | ▲이영의65 | ▲김택중81 | ▲김하진81 |
| ▲김삼혁70 | ▲김영숙72 | ▲최태동75 | ▲한광우74 | ▲유지현74 | ▲유형진63 | ▲전경옥80 | ▲전상수55 | ▲이영재54 | ▲이용현50 | ▲김학준44 | ▲김학찬69 |
| ▲김용구61 | ▲김응겸63 | ▲한중현77 | ▲한화섭49 | ▲윤대인74 | ▲윤무섭58 | ▲정옥란66 | ▲정치환64 | ▲이익우67 | ▲이재각89 | ▲김현옥59 | ▲김해정89 |
| ▲김인호87 | ▲김재휘88 | ▲허길행72 | ▲현학범61 | ▲윤영식58 | ▲윤재정57 | ▲조덕현84 | ▲조재경80 | ▲이재성62 | ▲이재원81 | ▲김호연80 | ▲나성환56 |
| ▲김정교53 | ▲김종대79 | ▲홍갑선59 | ▲홍경식78 | ▲윤하선47 | ▲윤홍로60 | ▲진광산66 | ▲차명희68 | ▲이재현74 | ▲이재호66 | ▲나인식73 | ▲남기종54 |
| ▲김종률76 | ▲김 준49 | ▲홍덕표78 | ▲홍행홍71 | ▲이강웅67 | ▲이경숙73 | ▲최애경60 | ▲최예심71 | ▲이준소61 | ▲이종진42 | ▲남종현72 | ▲노병룡60 |
| ▲김진철55 | ▲김혜선86 | ▲홍현신72 | ▲황경수52 | ▲이광웅63 | ▲이광현60 | ▲추명희74 | ▲한동주74 | ▲이주성63 | ▲이진규65 | ▲노성열43 | ▲노일양39 |
| ▲김후근59 | ▲김희창82 | ▲황의충66 | ▲황주연61 | ▲이규일57 | ▲이근호61 | ▲한석란75 | ▲한영옥62 | ▲이태일68 | ▲이현옥82 | ▲도재원72 | ▲문상득53 |
| ▲박기수78 | ▲박복남89 | ◇文理科大學 | | ▲이남식60 | ▲이덕길66 | ▲현숙자60 | ▲홍승숙71 | ▲이호연64 | ▲이희철51 | ▲문용린71 | ▲문판담60 |
| ▲박상만72 | ▲박선영66 | ▲강광원67 | ▲강대건63 | ▲이동우58 | ▲이문환53 | ▲황민자67 | ◇法科大學 | | ▲임무영86 | ▲박규홍73 | ▲박봉상63 |
| ▲박수복61 | ▲박용화55 | ▲강석명61 | ▲강승렬66 | ▲이병철62 | ▲이상택61 | ▲강기철54 | | ▲임태성76 | ▲임철목59 | ▲박세원79 | ▲박수환56 |
| ▲박의호77 | ▲박재성67 | ▲강신성69 | ▲강의정49 | ▲이상흡58 | ▲이석철63 | ▲강민구81 | ▲강상준63 | ▲장명봉72 | ▲임휘운67 | ▲박양수59 | ▲박영배74 |
| ▲박종국63 | ▲박종민63 | ▲강인숙56 | ▲고광웅64 | ▲이성재63 | ▲이수근62 | ▲강원일63 | ▲강해룡57 | ▲정광진63 | ▲전태봉57 | ▲박용설76 | ▲박재공69 |
| ▲박준기62 | ▲박종언66 | ▲고두영70 | ▲고영복54 | ▲이순자61 | ▲이승환60 | ▲강 훈76 | ▲강희문67 | ▲정덕영64 | ▲정남희67 | ▲박 재44 | ▲박종수64 |
| ▲박찬규61 | ▲박창언64 | ▲구맹회64 | ▲권규식57 | ▲이영섭67 | ▲이영재66 | ▲고정환58 | ▲곽희열81 | ▲정만익54 | ▲정병두84 | ▲박준언81 | ▲박진길64 |
| ▲박창용59 | ▲박창호62 | ▲권오득68 | ▲권오몽65 | ▲이오재66 | ▲이용옥60 | ▲관계현86 | ▲권병일57 | ▲정병호85 | ▲정성진63 | ▲박태화56 | ▲박홍균77 |
| ▲박치석71 | ▲박현봉79 | ▲권태승60 | ▲권형중67 | ▲이장우61 | ▲이정란63 | ▲권상률86 | ▲권순욱72 | ▲정성호85 | ▲정제화55 | ▲방정애60 | ▲배동선76 |
| ▲박형호64 | ▲박형훈60 | ▲김경태66 | ▲김관식62 | ▲이정린48 | ▲이정수63 | ▲권순일61 | ▲권순호88 | ▲정종우69 | ▲정진규69 | ▲백석철82 | ▲변재익65 |
| ▲박호건45 | ▲박홍준89 | ▲김광태75 | ▲김년태69 | ▲이정숙61 | ▲이정자63 | ▲김교두72 | ▲김기형86 | ▲정 창65 | ▲정희운56 | ▲복성규74 | ▲서수현55 |
| ▲배기환49 | ▲백운해82 | ▲김대천63 | ▲김덕렬65 | ▲이조경64 | ▲이창민66 | ▲김녹규69 | ▲김동현71 | ▲제갈용우88 | ▲조대연73 | ▲서정선64 | ▲성기종58 |
| ▲변영숙74 | ▲부경생64 | ▲김덕창63 | ▲김동선64 | ▲이태숙71 | ▲이형기62 | ▲김문수70 | ▲김상수64 | ▲조세연57 | ▲조영운61 | ▲소재익58 | ▲소진광79 |
| ▲서승덕61 | ▲서정택71 | ▲김동억70 | ▲김동일82 | ▲이희용58 | ▲임광순72 | ▲김선우88 | ▲김승욱64 | ▲조용구79 | ▲조우현80 | ▲손수일55 | ▲손윤승75 |
| ▲석효언64 | ▲성기준89 | ▲김명자66 | ▲김문성80 | ▲임동규59 | ▲임병철53 | ▲김영로88 | ▲김영일64 | ▲조인학61 | ▲조정철85 | ▲손종극59 | ▲송옥화59 |
| ▲성영한88 | ▲손진규89 | ▲김석만67 | ▲김상주66 | ▲임용철68 | ▲임정섭54 | ▲김용한63 | ▲김인일89 | ▲조종현55 | ▲주민회57 | ▲송용건65 | ▲송창한78 |
| ▲송동훈65 | ▲신동린67 | ▲김세민75 | ▲김성기65 | ▲임형택66 | ▲장세현45 | ▲김정삼76 | ▲김중구63 | ▲주영진92 | ▲진병춘74 | ▲신광균72 | ▲신흥균64 |
| ▲신명철67 | ▲신영혜74 | ▲김시준57 | ▲김양배63 | ▲장용선72 | ▲장화자55 | ▲김종명65 | ▲김주옥57 | ▲차중호57 | ▲천기홍66 | ▲안성희88 | ▲안정순43 |
| ▲신윤종50 | ▲심정근64 | ▲김영식69 | ▲김영철68 | ▲전동성72 | | | | | | | |

▲조용선64 ▲조은분42
▲조일홍64 ▲조현민77
▲조효진56 ▲조희식58
▲주봉노59 ▲주영순55
▲차재병63 ▲채영자65
▲최 각58 ▲최광만59
▲최귀묵89 ▲최다미32
▲최병순74 ▲최상렬67
▲최영락59 ▲최예종69
▲최재진60 ▲최종덕79
▲최태준73 ▲최현구74
▲최현섭74 ▲하석호60
▲하영준60 ▲하호성88
▲한기상68 ▲한문희57
▲한상규76 ▲한정길67
▲한주혁65 ▲한화선77
▲함오연74 ▲허경욱52
▲허재환81 ▲허태진64
▲홍경식46 ▲홍근일57
▲홍성장56 ▲홍순자41
▲홍종봉58 ▲황경화57
▲황금연54 ▲황남룡39
▲황정옥67

◇商科大學

▲강구영74 ▲강남규58
▲강용운65 ▲강인식70
▲강종기60 ▲강좌희59
▲고승현72 ▲공광우55
▲곽윤광64 ▲권만식69
▲권찬갑65 ▲김경렬59
▲김경모65 ▲김관형64
▲김기영61 ▲김길환65
▲김 동71 ▲김만유71
▲김만현56 ▲김범동72
▲김범수61 ▲김상희70
▲김승환71 ▲김영무62
▲김원수70 ▲김용기61
▲김용성62 ▲김은수55
▲김정우69 ▲김종남64
▲김종대67 ▲김종현57
▲김종희69 ▲김진호51
▲김진홍36 ▲김창녕56
▲김천기66 ▲김학배43
▲김혁진60 ▲김홍배54
▲김화섭66 ▲노영환59
▲노정옥52 ▲마문호51
▲문성택72 ▲문수만64
▲문영지59 ▲박경석57
▲박동진65 ▲박만철62
▲박 승61 ▲박영철63
▲박영충63 ▲박용덕68
▲박재범58 ▲박정일66
▲박종석69 ▲박종형75
▲박태일66 ▲박흥서53
▲배종덕74 ▲배진규57
▲백기영60 ▲백기환57
▲백훈상71 ▲변찬희71
▲서강무62 ▲서광욱57
▲서동범55 ▲서상록63
▲서정호43 ▲서진호72
▲성덕경72 ▲성삼경70
▲손우현72 ▲손재환73
▲손홍규55 ▲송무희65
▲송승호65 ▲송주식49
▲송준호67 ▲송화섭57
▲신범식56 ▲신영일65
▲신위철49 ▲신정용63
▲신희창58 ▲심병구53
▲심정수67 ▲안경상66
▲안병석52 ▲양재욱57
▲어영권69 ▲오강욱60

▲오용규74 ▲오태용68
▲우욱일68 ▲원영춘66
▲유권상75 ▲유노상64
▲유방창65 ▲유종백57
▲유한교57 ▲육평일65
▲윤석한40 ▲윤재우65
▲윤정희58 ▲윤진식56
▲유희우59 ▲이갑현68
▲이관우74 ▲이광호65
▲이국희62 ▲이규양57
▲이근재48 ▲이근영72
▲이기인59 ▲이기호55
▲이문원70 ▲이병선57
▲이삼우56 ▲이연택64
▲이영순71 ▲이원규61
▲이윤우70 ▲이장호69
▲이재등61 ▲이재석65
▲이정달67 ▲이정전71
▲이준복71 ▲이중희52
▲이진명69 ▲이창일65
▲이태중55 ▲이필석35
▲이한희58 ▲이호철61
▲이호근74 ▲이회성69
▲이희준53 ▲인수환58
▲임병민51 ▲임호운72
▲장성기59 ▲장재기68
▲장태영49 ▲전복규60
▲전석재65 ▲전용주60
▲정구현69 ▲정 단67
▲정세진57 ▲정익준73
▲정인승54 ▲정장식73
▲정점식64 ▲정정숙53
▲정중서49 ▲정진형61
▲조규재54 ▲조동성71
▲조성진61 ▲최규현68
▲최덕근69 ▲최명해72
▲최병로59 ▲최복렬66
▲최처락58 ▲추수욱57
▲하승우57 ▲한봉희73
▲한상동42 ▲한석정69
▲한정준58 ▲한 환56
▲함규중69 ▲허병우70
▲허재원60 ▲황영주65

◇獸醫科大學

▲강성봉72 ▲김건호74
▲김기흥56 ▲김길성64
▲김남홍64 ▲김덕은80
▲김동신60 ▲김동훈60
▲김두명56 ▲김문식86
▲김본원67 ▲김성기80
▲박기복59 ▲박내정67
▲박양기60 ▲신광호71
▲오순민88 ▲오창환75
▲윤석정71 ▲이강남74
▲이규본65 ▲이덕주64
▲이병욱51 ▲이완준66
▲이원형82 ▲이정학87
▲이종경79 ▲이종석57
▲이준섭68 ▲이진수75
▲이택희73 ▲정영채60
▲정용면57 ▲정종태85
▲정창국51 ▲정태규60
▲정홍래64 ▲지순환66
▲지영민65 ▲최광수64
▲최영래69 ▲최영식65
▲한수남53 ▲한정운64
▲홍순국59 ▲황재창55
▲황대우71

◇藥學大學

▲강순철59 ▲고원규90

▲곽영의65 ▲곽의종77
▲권영환58 ▲김경영68
▲김동호77 ▲김만국50
▲김병근57 ▲김영호52
▲김의식56 ▲김인경87
▲김재환72 ▲김정화61
▲김창수78 ▲김홍숙77
▲도달희57 ▲문원호69
▲문창기58 ▲문창술61
▲민경원55 ▲박경욱66
▲박명호57 ▲박시우73
▲박유정50 ▲박정섭51
▲박준석67 ▲배영자69
▲백연희81 ▲손인자73
▲신성목74 ▲신정균59
▲심우원76 ▲엄주오57
▲오천권76 ▲우용렬61
▲우제안61 ▲원현숙57
▲유문자68 ▲윤여상61
▲이기동48 ▲이기완68
▲이병규47 ▲이상규62
▲이상모59 ▲이상호70
▲이완영76 ▲이인기77
▲이인순74 ▲이태규59
▲이형우60 ▲정대규43
▲정동하55 ▲정환수55
▲조균형78 ▲최경명76
▲최종순55 ▲최종민64
▲최진근61 ▲추홍주80
▲편창범54 ▲하성삼64
▲한병훈56 ▲현덕성70

◇音樂大學

▲강은수83 ▲고춘선73
▲김명희68 ▲김상숙89
▲김성남51 ▲김인숙71
▲김형순72 ▲목동균67
▲목완수77 ▲문명자68
▲문병찬61 ▲박희정89
▲방영호84 ▲배일완71
▲성석태75 ▲송영욱84
▲신윤식74 ▲신현순60
▲신혜경74 ▲양경숙79
▲오유애80 ▲유동열84
▲윤의중87 ▲이경숙63
▲이명희72 ▲이상룡66
▲이상미88 ▲이수철69
▲이영숙59 ▲이옥엽67
▲이용일61 ▲이은호72
▲이지영88 ▲이판준72
▲이해식69 ▲이혜선74
▲이효분71 ▲이희자79
▲임경희70 ▲임만규56
▲임은정87 ▲장은영76
▲정규주77 ▲정은숙74
▲조민정89 ▲최덕천82
▲최원미86 ▲최효열73
▲피호영83 ▲한은재64
▲한정혜87 ▲현해진48
▲홍종진72

◇醫科大學

▲강성섭76 ▲강조자68
▲강태현56 ▲구본홍62
▲구재철84 ▲권영소50
▲기정일65 ▲김경일82
▲김근호84 ▲김득구56
▲김명석68 ▲김명아85
▲김범용53 ▲김병국70
▲김성용85 ▲김세엽76
▲김수경85 ▲김순배84
▲김영석71 ▲김영택52

▲김용태89 ▲김우영49
▲김운식75 ▲김은주88
▲김의식44 ▲김진국58
▲김진혁84 ▲김창진81
▲김치환79 ▲김현우70
▲김홍준79 ▲남궁건73
▲남귀현84 ▲남상룡79
▲노정일77 ▲문일영57
▲문채구59 ▲민병섭60
▲민원식82 ▲박동현76
▲박승일85 ▲박용섭56
▲박은호83 ▲박중수76
▲박지홍75 ▲박현준66
▲배병주50 ▲백운집79
▲백현욱80 ▲서교일84
▲서병태60 ▲손병선48
▲손봉기73 ▲손영인56
▲송계승80 ▲송동근81
▲송재원61 ▲신봉하56
▲신찬수87 ▲안영찬59
▲안재훈88 ▲옥홍남60
▲유지문60 ▲유형록63
▲유형복49 ▲이갑로71
▲이건용75 ▲이경욱58
▲이국주55 ▲이병윤61
▲이상립50 ▲이상일85
▲이선호55 ▲이승남82
▲이영돈79 ▲이용규60
▲이은구61 ▲이정우57
▲이종일54 ▲이종철73
▲이종혁62 ▲이충원82
▲이형목52 ▲이홍균63
▲이 회75 ▲임대선59
▲장일석76 ▲전경호59
▲전규식66 ▲전영훈82
▲정기석83 ▲정문현83
▲정승기76 ▲정재면89
▲정팔현82 ▲정해관82
▲조성근53 ▲조진규47
▲주순오53 ▲주진순47
▲지선규56 ▲채인영82
▲최덕영64 ▲최원중43
▲최익렬42 ▲최일형51
▲최형석56 ▲한국남52
▲한달선64 ▲한종희75
▲허 현67 ▲홍두미81
▲홍성훈67 ▲홍승인85
▲홍원선77 ▲홍운철85
▲홍재웅67 ▲황대용84

◇齒科大學

▲강대준72 ▲강민나92
▲강호경57 ▲곽영진80
▲권영희87 ▲김광주75
▲김기석74 ▲김명기76
▲김명수72 ▲김명영81
▲김미자85 ▲김상철83
▲김선용69 ▲김수남66
▲김영규76 ▲김영수58
▲김영환72 ▲김오환68
▲김원식86 ▲김익현85
▲김정범66 ▲김주영62
▲김진수61 ▲김진수84
▲김창우86 ▲김천식77
▲김철희75 ▲김충배79
▲김혜현85 ▲김효철65
▲류경희75 ▲류준근85
▲목성규87 ▲문일환71
▲박경정75 ▲박경준83
▲박동귀59 ▲박병덕66
▲박성득59 ▲박연수54
▲박영길70 ▲박용환73

▲박인옥89 ▲박재간85
▲박태선58 ▲박태수71
▲박홍규77 ▲박희철55
▲방수남68 ▲백승진83
▲서석균71 ▲서학원80
▲설창환73 ▲송연희91
▲신문창87 ▲심연택74
▲안성훈81 ▲안효일62
▲양문섭84 ▲오경서58
▲오기돈67 ▲오민환70
▲왕상현57 ▲유정숙88
▲유지은58 ▲유태영69
▲유희호60 ▲윤경수78
▲윤경호62 ▲윤임도78
▲이교인72 ▲이규철71
▲이덕근61 ▲이만선72
▲이상대74 ▲이상필76
▲이승범81 ▲이승연67
▲이승은89 ▲이영종84
▲이왕주61 ▲이인경88
▲이점식68 ▲이종호58
▲이철민85 ▲이태성58
▲이해철61 ▲이현석88
▲이희병78 ▲임승찬75
▲임우하62 ▲임종호88
▲장영일70 ▲전영섭66
▲정성택75 ▲정치영82
▲정행남68 ▲정현영77
▲정호선86 ▲조달문68
▲조대희73 ▲조상범69
▲조시형88 ▲조현재83
▲차문호47 ▲차혜영67
▲채영제55 ▲최기재64
▲최동광69 ▲최동률59
▲최봉섭57 ▲최순규74
▲최영희62 ▲최창덕69
▲한상욱64 ▲한 영85
▲한태원76 ▲현재만84

◇大學院

▲권오담92 ▲권택호89
▲김문협68 ▲김선동88
▲김성간76 ▲문무홍82
▲문수진77 ▲민용규84
▲박용희65 ▲송석훈78
▲송승욱76 ▲신경환71
▲양일석75 ▲원상봉83
▲이남기76 ▲이석륜56
▲이영하86 ▲장승재85
▲장현구68 ▲최광수80
▲최종서83 ▲최 현86
▲한대성88 ▲한정현81

◇經營大學院

▲김연식72 ▲김호봉69
▲박노신68 ▲박영준68
▲박원봉68 ▲양해경71
▲우성주71 ▲조한욱70

◇教育大學院

▲박광희66 ▲박영배74
▲박진길71

◇保健大學院

▲김규태69 ▲김대을76
▲김상욱69 ▲김종만64
▲송선대72 ▲신언택61
▲윤기은72 ▲이한구72
▲임창희62 ▲조유정69
▲최상순73

◇司法大學院

▲정덕장72
◇新聞大學院
▲윤임술69 ▲조승환72
◇行政大學院
▲강정희68 ▲김대성79
▲김진우77 ▲노선호68
▲박찬도66 ▲서삼영75
▲손종호67 ▲송상민69
▲안병영65 ▲이지언87
▲장학상70 ▲정여철74
▲홍명선64 ▲홍석철64

◇環境大學院

▲강은순74 ▲김선태88
▲박수남87 ▲안경진75
▲안영식84 ▲이장수74
▲주윤식75

◇최고산업전과과정

▲곽창욱① ▲김학선①
▲정팔도① ▲김영선②
▲김희근② ▲김 회②
▲박운소② ▲이원영②
▲이정수② ▲임석재②
▲차동성② ▲최문규②
▲강득수③ ▲김신탍③
▲김영수③ ▲김원주③
▲김창환③ ▲김학문③
▲남대우③ ▲장문삼③
▲김상희④ ▲박세신④
▲양주현④ ▲이 결④
▲이호웅④ ▲김경철⑤
▲박인규⑤ ▲유각목⑤
▲이건창⑤ ▲김종목⑥
▲박종우⑥ ▲옥남선⑥
▲유은목⑥ ▲이은택⑥
▲박병수⑦ ▲이성근⑦
▲이신연⑦ ▲이재갑⑦
▲전홍범⑦ ▲최경하⑦
▲최평욱⑦ ▲김광남⑧
▲김상화⑧ ▲박기점⑧
▲심갑보⑧ ▲이병만⑧
▲전영웅⑧ ▲정영수⑧
▲차전환⑧ ▲최성규⑧
▲강인순⑨ ▲김관수⑨
▲김홍중⑨ ▲백준기⑨
▲양 명⑨ ▲양재석⑨
▲윤상덕⑨ ▲이종하⑨
▲이준각⑨ ▲조용준⑨
▲김상렬⑩ ▲신길웅⑩
▲여인석⑩ ▲이종운⑩
▲한경섭⑩ ▲함학주⑩
▲고봉훈⑩ ▲김광식⑩
▲김대환⑩ ▲김서곤⑩
▲김정호⑩ ▲남세현⑩
▲박명남⑩ ▲신현교⑩
▲안정환⑩ ▲유승철⑩
▲윤장진⑩ ▲김민수⑩
▲김선경⑩ ▲김정웅⑩
▲박인서⑩ ▲박인호⑩
▲송병권⑩ ▲심규진⑩
▲오명균⑩ ▲오원근⑩
▲이경신⑩ ▲이복근⑩
▲이승규⑩ ▲이종희⑩
▲이해규⑩ ▲정병욱⑩
▲주영현⑩ ▲신중규⑩
▲유태로⑩
◇최고경영자과정
▲최상화⑩